

RUSSIA IN&OUT

RIO

2026. 8 | No. 28

특집 기획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

이슈 진단 다시 꿈틀대는 두만강: 러·북 도로교부터 서변포 구상까지

RIO 초대석 육경은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한국 여행, 러시아인 마음을 사로잡다

크렘린 전망대 코코시니크의 재발견: 문화 코드와 창조 경제

경제 내비게이션 러시아 창조 산업 동향과 전망

역사 프리즘 런던을 매혹한 러시아 미술: 유럽 모방에서 독자 예술로

예술 현장 바이로이트의 러시아 예술인들: 차이콥스키에서 체르냐코프까지

미디어 트렌드 소련의 마지막 여름: 8월 쿠데타 여파의 재조명



ISSN 3091-9371 (Print) | ISSN 3091-9487 (Online)

Photo Essay

튼튼한 판자를 깔아 만든 두 마을을 잇는 오솔길. 모스크바에서 4,000km 떨어진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의 알타이산맥 기슭에서 나는 이 길을 보았다. 오지에 있는 문명의 흔적을 두고, 어떤 이는 '그래, 이게 뭐 대수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앞에 서서 각별한 의미를 떠올렸다. 길을 따라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연의 역할에 대해...
[사진·글: 콘스탄틴 코코시킨]

발간사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오직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통찰은 빙하가 무너져 내린 히말라야의 참사 앞에서 비가역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기후변화에 맞선 인류의 대응은 온실가스를 줄여 파국을 늦추려는 ‘완화(Mitigation)’와 파괴된 생태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적응(Adaptation)’으로 갈린다. 그러나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지구에서 재앙을 되돌리려는 완화의 시도는 사실상 무력해졌으며, 인류는 이제 적응이라는 불가피한 생존의 단계로 내몰리고 있다. 적응은 온건한 타협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가혹한 ‘돌연변이’ 과정이다. 이 냉혹한 논리는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서 오늘날 러시아에도 거울처럼 비친다. 소련 해체 이후 서방 중심 질서의 원심력을 완화하고 유럽의 번두리에 편입되려던 부단한 노력은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러시아는 과거로의 복귀를 단념하고, 서방의 경계 너머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택하며 스스로 문명적 돌연변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RIO 28호는 서구 편입을 향한 과거의 ‘완화적 시도’와 그 환멸 끝에 태동한 새로운 ‘적응의 이후’들을 다각도로 응시한다. 「역사 프리즘」과 「예술 현장」은 19세기 만국박람회와 바이로이트 축제를 통해 서구의 시선 속에서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고투했던 러시아 예술의 궤적을 돌아보며, 「미디어 트렌드」는 서방과의 융합을 맹신했던 35년 전 8월 쿠데타와 엘친 승리의 잔상을 되짚는다. 반면 서구와의 결별 이후 펼쳐지는 적응의 현장은 거칠고도 선명하다. 「특집 기획」은 탈달러와 다극화를 향해 재편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크렘린 전망대」는 여성 전통 머리 장식 코코시니크를 통해 서구화를 벗고 자기 뿌리로 회귀하는 문화적 주술을 해부한다. 「이슈 진단」에서는 중국의 두만강 출해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지정학적 적응 전략을, 「경제 내비게이션」은 서방의 규칙을 깨고 러시아 고유의 야성으로 반전을 꾀하는 창조산업의 활로를 짚는다. 여기에 「RIO 초대석」은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한 러 인적 교류와 관광의 생생한 현주소를 포착한다. RIO는 문명적 자기 변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 질서로 적응해 가는 러시아의 거친 파동을 끝까지 예리한 시선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편집위원회

RUSSIA IN&OUT

RIO 2026년 8월호 No. 28

편집주간 김현택

편집위원 라승도, 박종호, 이대식, 김유정, 이태훈, 임명욱

디자인 김지연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3호

<https://rioins.kr>

info@rioins.kr



04 | 특집 기획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 아나스타시야 포드루기나·비올레타 로마노바
서방 주도의 국제 금융 체제에서 배제된 러시아 출구 전략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러시아가 지향하는 새로운 다각화된 글로벌 통화 질서를 엿본다.



17 | 이슈 진단
다시 꿈틀대는 두만강: 러·북 도로교부터 서변포 구상까지 이성우
임박한 러·북 두만강 도로교 개통을 계기로 중국의 동해 출해 의제가 어떻게 다시 떠오르고 있는지, 나아가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북·중·러의 계산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26 | RIO 초대석
육경은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한국 여행, 러시아인 마음을 사로잡다 김현택
육경은 한국관광공사 지사장을 만나, 지속 성장 중인 러시아인의 한국 관광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현지점에서 관광이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을 짚어본다.



38 | 크렘린 전망대
코코시니크의 재발견: 문화 코드와 창조 경제 라승도
러시아 여성의 전통 머리 장식인 코코시니크가 청년층 등 여러 세대에 걸쳐 대유행하며 판매도 급증하는 현상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47 | 경제 내비게이션
러시아 창조 산업 동향과 전망 안나 바실렌코
최근 서방과의 단절 속에서도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고유의 특징을 살리며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고 있는 러시아 창조 경제의 특징점을 조명한다.



55 | 역사 프리즘
런던을 매혹한 러시아 미술: 유럽 모방에서 독자 예술로 나탈리아 드로노바
러시아 미술이 1872년 런던 국제박람회에 소개된 과정을 살펴봄에 유럽 미술의 모방을 넘어 독자적 예술로 인정받기까지 러시아 미술계 변화와 재평가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본다.



63 | 예술 현장
바이로이트의 러시아 예술인들: 차이콥스키에서 체르냐코프까지 박선영
바이로이트 축제 150주년을 기념해 이 축제와 인연을 맺어온 러시아 예술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문화-예술계의 바그너 수용사를 돌아보면서 이 축제의 의미를 되돌아본다.



71 | 미디어 트렌드
소련의 마지막 여름: 8월 쿠데타 여파의 재조명 김유정
1991년 8월 쿠데타 35주년 보도를 통해 러시아 언론이 당시 권력투쟁과 소련 해체의 연관성, 국가권력의 정당성 위기와 역사적 교훈을 어떻게 재조명하는지 살펴본다.

글로벌 기축통화 경쟁을 진단하다

전 세계 지정학적 단층선이 요동치는 가운데 80여년 넘게 굳건하게 전 세계 금융을 독점한 미국의 달러 패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연방 부채의 기하급수적 팽창,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탈달러화와 대안적 결제 체계 구축 시도 등은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실물 경제의 생산성 우위를 재탈환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화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1970년대에 그랬듯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역사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기축통화 경쟁과 그 사이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연재 순서

1. 기축통화 탄생과 지속의 역사적 조건은 무엇인가?
2. 미국 기축통화 정책의 현황과 전망
3.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4.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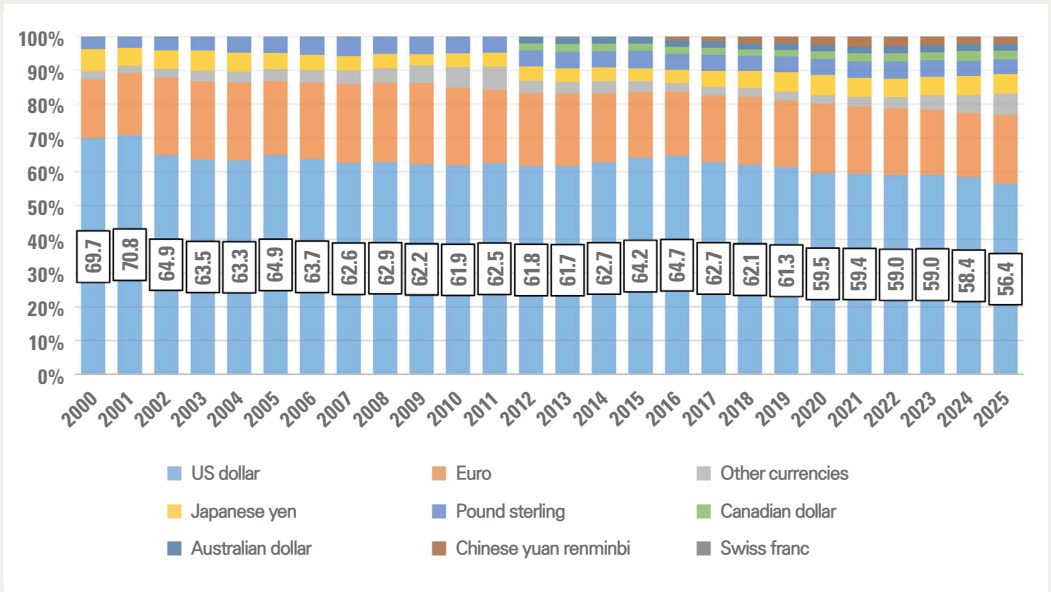
러시아가 꿈꾸는 글로벌 금융 질서

아나스타시야 포드루기나 고등경제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비올레타 로마노바 고등경제대학교 기후변화경제 실험실 분석가

들어가며

세계 각국의 금고에서 달러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밀려나고 있다. 2000년 거의 70%에 달했던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은 2025년 56%까지 낮아졌다. 20여 년에 걸쳐 벌어진 이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브렉시트,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이 사건들은 국가 간 관계에 새로운 갈등을 낳으며, 그동안 진전돼 온 세계 경제 통합의 흐름을 되돌리려는 움직임, 이른바 지경학적 분절(Geoeconomic Fragmentation)을 가속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각국은 국가 주권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기 시작했다. 특히 한창 성장 중인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s)들은 해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의존을 다시 점검하며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고, 무역 결제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다만 이 하락은 여러 통화로 골고루 나뉜 결과라기보다는 유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위안화의 역할이 커진 결과에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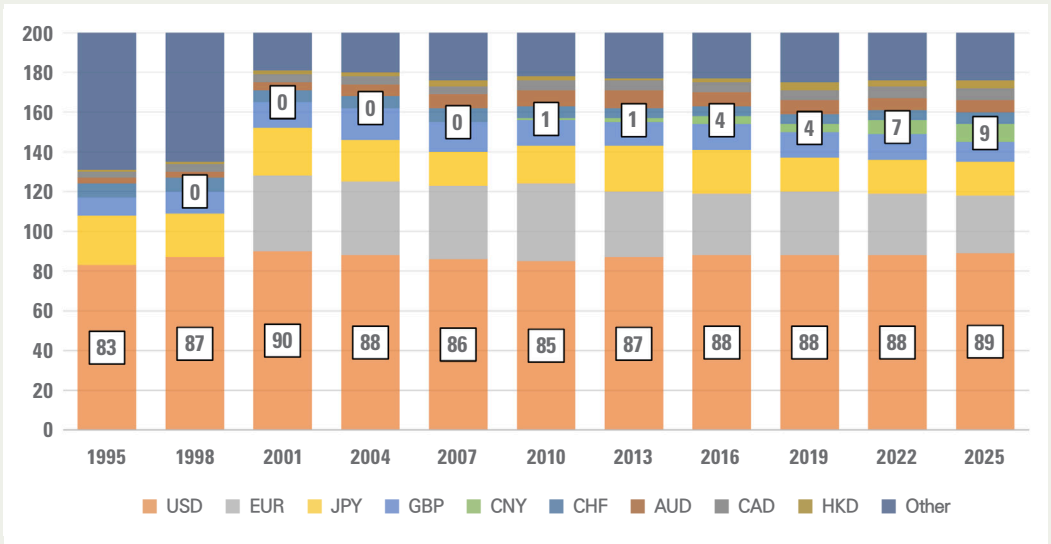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런 변화는 화폐의 특정 기능에 국한된 제한적인 현상이다. 국제금융체제의 핵심 인프라에서는 여전히 달러가 지배적이다. 2025년 세계 장외(OTC) 외환거래에서 달러는 89%(1995년 83%)를 차지했지만, 위안화는 2000년대 초 거의 존재하지 않던 수준에서 9%까



세계 외환보유액의 통화별 구성(2000~2025) © IMF, COFER

지 성장하는 데 그쳤다. 국제결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 달러의 비중은 전체 거래액의 약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즉 준비자산과 양자 무역 결제는 여러 통화로 분산되고 있지만 세계 통화 체제의 근간은 여전히 달러 중심이다.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 구성에서 달러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국제금융의 배관 자체는 여전히 달러가 쥐고 있다. 이 간극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 배관을 쥔 자는 언제든지 물줄기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는 이를 ‘무기화된 상호 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이라 부른다. 달러 결제망이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처럼 세계 경제의 핵심 허브를 통제하는



통화별 장외(OTC) 외환거래 비중(1995~2025) © BIS

“러시아에 탈달러화는 이제 제재에 대한 실용적 반격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국가는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금 흐름을 감시하거나 상대방을 금융서비스에서 끊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다수 나라에 탈달러화는 서두를 것 없는 선택이지만, 제재받는 나라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가장 극적인 실험장이 바로 러시아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러시아는 자국 통화 결제를 늘리고 준비자산 구조를 다시 짜는 것으로 응수했다. 러시아에 탈달러화는 이제 제재에 대한 실용적 반격이자, 경제 주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1. 러시아의 탈달러화: 위험관리에서 강제적 구조 전환으로

러시아에서 탈달러화는 어느 한 날 선포된 정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차근차근 쌓아온 대비책이었다. 첫 번째 흐름은 2014년 서방의 대러 제재 이후 시작되어 2022년까지 조용히 전개됐다. 이 기간 러시아는 자체 카드 결제망 ‘미르(MIR)’, SWIFT의 대안으로 마련한 금융메시지전송시스템(SPFS), 개인과 기업 간 즉시 송금을 지원하는 신속결제시스템(SBP)을 구축했다. 동시에 2018년 국제 제재가 강화된 이후 미국 국제 보유액을 급격히 축소했고, 준비자산을 달러에서 다른 통화와 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만 이 초기 단계의 정책이 달러와 완전히 결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당시 정부의 공식 방침도 탈달러화가 달러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 이렇게 쌓아온 대비책이 실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 경제의 여러 핵심 영역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가장 먼저 떨어진 조치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대외 준비자산의 약 절반을 동결한 것이었다.¹ SWIFT 배제도 만만치 않았다. SPFS는 애초 국내 송금용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었던 터라, 다수 은행이 배제되면서 국경 간 결제는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카드 결제만큼은 예상 밖으로 버텼다. 2022년 3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발을 빼면서 외국 발행 카드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발행 카드는 외국에서 각각 무용지물이 됐지만, 이미 깔려 있던 MIR 결제망 덕분에 국내 거래는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이 드러난다. 2014년에 쌓아둔 방패가 2022년의 직격탄을 부분적으로 막아냈고, 동시에 다음 단계 제도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책은 자국 통화 제도 구축을 향해 강제로 재편됐다. 통화 주권은 어떤 돈을 보유하느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돈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결제망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2. 준비자산의 재편: 위안화, 금, 그리고 제한된 다변화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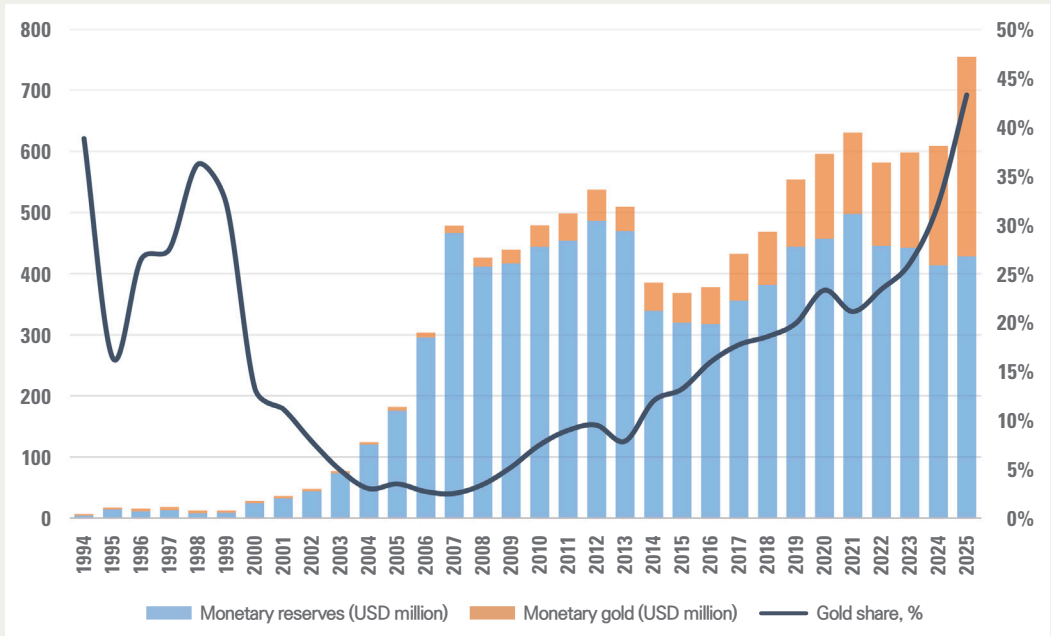
지정학적 분절과 제재 위험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국제 준비자산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 무역 결제와 준비자산 운용 등에서 달러 의존이 중국 통화·금융 체제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될 뿐 ”

없었다. 2022년 이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달러 보유를 이미 줄이고 위안화를 준비통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다. 2017~2021년 외환·금 준비자산에서 달러 비중은 45.8%에서 16.4%로 급감했고, 위안화 비중은 2021년 13.1%까지 상승했다.² 다만 위안화는 국제금융체제에서 여전히 작은 역할에 머물러 있고, 중국의 자본 통제와 제한적 태환성 때문에 달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부차적인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의존을 낳는데, 위안화 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중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을 수 있는지가 결국 중국의 정치적 의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발생한다. 위안화 사용 확대는 달러와 서방 금융 인프라에 대한 노출은 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외화 의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역 결제와 준비자산 운용 등 일부 영역에서는 달러 의존이 중국 통화·금융 체제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되고 있을 뿐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지정학적 성격이다. 중국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이며 서방 통화와 결부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 주권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대안 통화로 의존하는 것 자체가 취약성의 원천으로 남는다. 따라서 여러 통화와 결제 경로를 더 폭넓게 아우르는 분산된 구조가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안화 외에는 안정성·유동성·개방성을 두루 갖춘 통화가 많지 않다. 인도 루피를 비롯한 다른 파트너국 통화는 대체로 준비자산으로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신도 추가적인 준비자산 다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³

달러 표시 자산에서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 국제 준비자산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25년 약 43%에 이르렀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약 1,957억 달러였던 금 평가액은 2025년 말 3,265억 달러(43.3%)로 늘었고, 2026년 1월에는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021억 달러, 48.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⁴ 그러나 이후 흐름은 반전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만 금 약 44t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7월 말에는 금 평가액이 2,929억 달러(40.7%)까지 낮아졌다.⁵ 즉 최근 러시아의 금 비중 변화는 가격 효과만이 아니라 재정 수요에 따른 실제 매각이라는 정책적 선택도 함께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역사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은 지정학적·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고에金を 쌓아왔다. 금융 제재 위험이 커질수록 중앙은행들의 금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흐름은 외국에 있는 자국 자산을 압류당할까 봐 우려하는 신흥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금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국 정부가 이를 동결할 수 없고, 국내에 보관된 금은 다른 나라의 금융시스템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특징이 발목을 잡기도 한다.



러시아 국제 준비자산 구성(1994~2025) © Bank of Russia

금은 이자를 낳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역설이 있다. 다시 말해 금고 속에 안전하게 쌓인 금일수록 정작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화로 바꾸거나 국제 거래에 활용하려면 대개 외국의 공인된 보관·거래 기관을 거쳐야 하는데, 그 순간 다시 제재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최근 여러 중앙은행은 외국에 맡겨 둔 금을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흐름을 보인다. 인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이후 국내 보관 비중을 늘려왔지만, 일부는 여전히 외국에 남겨두고 있다. 국제 시장에 계속 발을 걸쳐놓아야 실제 거래에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정반대 극단을 택했다. 통화용 금 전량을 이미 자국 영토 내로 거둬들였다. 유용성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완전한 통제권을 지키겠다는 선택이다.⁶ 러시아의 경험은 신흥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딜레마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더 크게 보호해 주는 자산일수록, 정작 일상적인 국제 금융 거래에는 쓸모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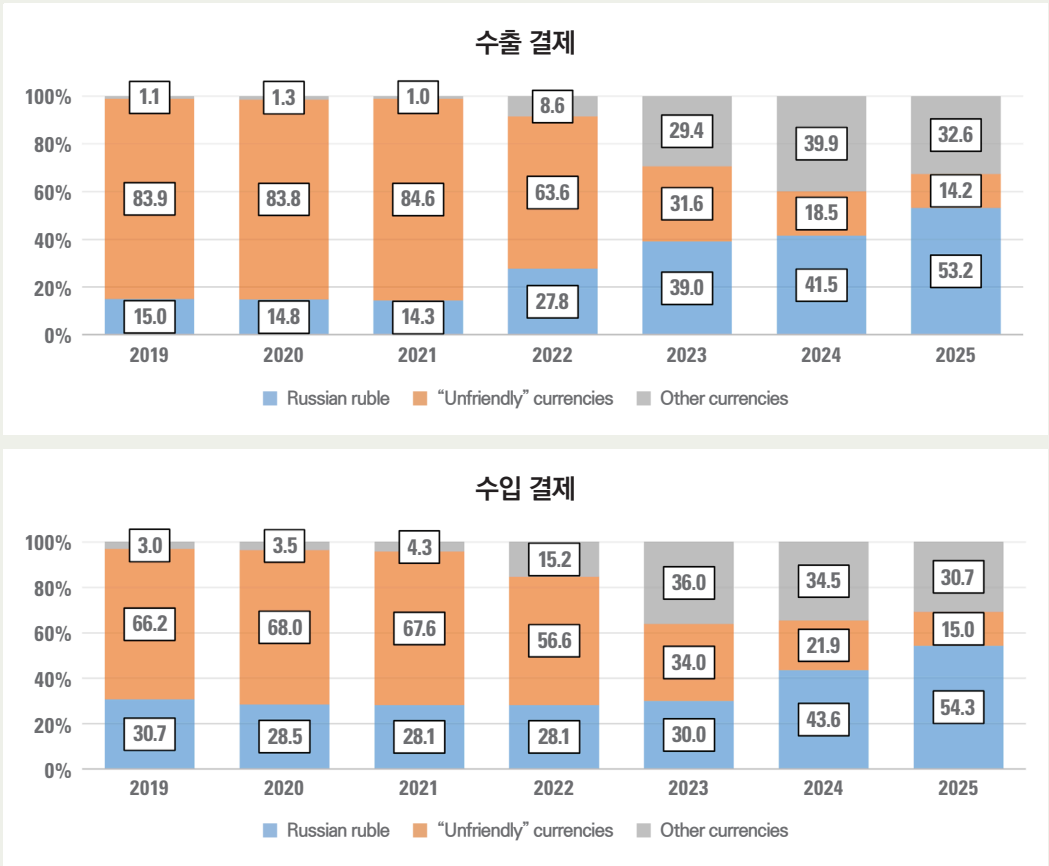
3. 대체 결제·송금 메커니즘: 위험과 기회

오늘날에도 달리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결제통화이지만,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 미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다른 통화로 얼마든지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주요 통화가 지배

“ 금처럼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수록 정작 일상적인 국제금융 거래에서는
쓸모가 적은 딜레마 ”

력을 갖는 데는 경제적 펀더멘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 시장 유동성, 이미 갖춰진 금융 인프라도 함께 작용한다. 러시아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찾는 데 특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제재 때문에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대체 결제 수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대외무역의 통화 구조에 뚜렷이 반영돼 있다. 2022년 이전 ‘비우호국’ 통화는 주로 달러와 유로로 구성돼 수출의 약 85%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그 비중이 14~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루블 비중은 수출 결제의 약 53%까지 올라 처음으로 지배적인 결제통화가 됐다.

자국 통화 사용 확대는 러시아 무역 관계 변화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됐다. 이런 전환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앞서 있다. 2022년 이후 제3국 통화로부터 빠르게 이탈하면서 2024년에는 러·중 양자 무역의 90% 이상이 루블·위안화로 결제됐다.⁷ 인도와의 무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이 자국 통화로 결제되고 있다.⁸ 이란과의 협력은 더 제도화된 경로를 밟아, 양국은 2024년 양자 거래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⁹ 그러나 자국 통화 사용에는 무역 상대국 간의 정치적 합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의 존재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통신망, 서로 다른 나라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협력하는 관계, 양측이 함께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 포함된다. 러시아에서는 SPFS가 SWIFT를 대신하는 결제 정보 통신망 역할을 한다.



러시아 수출입 결제통화 구조(2019~2025) © Bank of Russia

“러시아 국내용 결제 정보 통신망 SPFS가 러시아 외 20개국 159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결제용으로 확대”

처음에는 주로 국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점차 외국 참여기관으로 확대됐다. 557개 은행·기업이 연결돼 있으며 그 가운데 159개는 러시아가 아닌 20개국 기관이다.¹⁰ 러시아와 이란은 SPFS와 이란의 SEPAM 시스템을 연결했고, 중국 측 결제는 중국의 CIPS에 점차 의존하게 됐다. 러시아와 인도 간 결제는 인도준비은행이 승인한 루피-루블 결제 제도에 의존하는데, 러시아 은행이 인도 은행에 루피 전용으로 마련한 계좌(보스트로 계좌)를 통해 직접 결제한다. 다만 러시아가 인도에 파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 인도 쪽 계좌에는 루블 대신 루피가 계속 쌓이는데 정작 루피는 다른 통화로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바꾸기 어려워 러시아가 그 돈을 쓸 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이 이른바 ‘루피 함정(Rupee Trap)’을 낳았다.¹¹

또 다른 방식은 제삼국에 있는 금융 중개 기관과 전문 결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사례가 국영 은행 PSB의 자회사로 2024년 출범한 A7 플랫폼으로,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러시아 대외무역 결제의 중요한 통로로 부상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련 업계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무역 전체 거래량의 약 5분의 1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¹²

그리고 2025년 초, A7 네트워크에서 훨씬 더 대담한 실험이 시작됐다. 루블 연동 스테이블 코인 A7A5의 등장이다. 이더리움과 트론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A7A5는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된 Old Vector LLC가 발행하며, PSB 계좌에 예치된 루블 준비자산에 1대1로 연동돼 가치를 유지한다.¹³ 모기업 A7 LLC의 지분 51%는 몰도바 출신 도피 정치인 일란 쇼르가, 나머지 49%는 PSB가 쥐고 있다.¹⁴ 등장 첫해인 2025년, A7A5는 900억~1,200억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서방 제재를 우회하는 최전선 실험으로 주목받았다. 2025년 5월 영국이,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0월 유럽연합(EU)이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잇달아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그때까지도 A7A5는 건재해 보였다.¹⁵⁻¹⁶

그러나 2026년 4월 16일 균열이 드러났다. A7A5 유동성 대부분을 떠받치던 거래소 Grinex가 해킹을 이유로 영업을 돌연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월간 거래량은 고점 대비 약 96% 급감했다.¹⁷ 발행사 측은 2026년 상반기에도 하루 평균 2억 달러, 누적 344억 달러의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독립 분석 업체들의 시선은 훨씬 더 차갑다. 그 상당 부분(약 34%)이 같은 관계자들 사이를 맴도는 가공 거래(Wash Trading)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⁸ 1년여 만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몸집을 불렀던 A7A5는 결국 러시아의 대체 결제 실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여준 사례가 됐다. 소수의 거래소에 유동성이 집중된 구조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디지털 통화는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할 또 다른 잠재적 수단이다. 러시아에서는 디지털 루블이 더 폭넓은 도입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6년 9월 1일부터 대규모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국경 간 결제에서 잠재력은 기술 자체보다는 각국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에 달려 있다. 예컨대 중국·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함께 실험 중인 mBridge 프로젝트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를 서로 연결하면 결제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견제하면서 참여국 확대가 얼마나 더뎠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¹⁹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비롯한 민간 디지털 수단도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잠재적 통로다. 결제 속도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자산의 가치 연동(Peg)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자산 구조는 급격한 가격변동과 갑작스러운 상환 쇄도(Run) 위험에 취약하며, 발행사의 신뢰나 준비자산의 품질에 의구심이 제기될 경우 새로운 금융 불안정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런 위험을 국민 자산 위협, 금융 안정 위험, 불법 경제활동 확산이라는 세 갈래로 경계해 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중앙은행은 2026년 6월 25일 공개 협의용 보고서 「스테이블코인: 러시아 내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4년 약 1,50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3,18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USDT·USDC가 약 89%를 차지한다. 주목할 점은 국외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암호화폐’가 아니라 ‘외국 디지털 권리’로 분류하고²⁰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적격 투자자는 러시아 국내 인프라를 통해 USDT·USDC 같은 국외 스테이블코인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²¹ 다만 딜레마도 있다. 국외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은행 경로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때 국경 간 거래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달러로 표시되며 외국 발행사·준비자산·기술인프라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 확산은 러시아의 대외 금융 의존을 줄이기보다는 전통적인 달러화를 디지털 형태로 재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는 통화 표시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국 발행사에 대한 의존은 새로운 기술·제도적 의존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디지털 루블, 루블 표시 디지털 금융자산처럼 러시아의 규제 범위 안에 머무는 수단의 발전이 더 폭넓은 전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국제적 역할은 국외의 거래 상대방이 이를 기꺼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파트너국의 결제 플랫폼과 통합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종합하면 러시아는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대체 경로를 한데 묶어 구축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금융 메시지망, 결제 시스템 간 양자 연결, 제3국 중개 기관,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는 각각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러시아가 그리는 미래 국제통화 체제는 달

“러시아는 하나로 통합된 새로운 시스템이 아니라 금융 메시지망, 결제 시스템 간 양자 연결, 제3국 중개 기관,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 등 여러 대체 경로를 한데 묶어 문제를 해결”

러를 또 다른 단일 지배 통화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통화와 경로가 나란히 존재하는 형태에 가깝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특정 하나의 대안 준비통화를 키우는 것보다 통화·결제 경로·금융 인프라 전반의 다변화가 더 중요해 보인다.

4. BRICS: 금융 협력 플랫폼

양자 간 채널과 국가별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 개별 국가 홀로 새로운 국제 제도를 만들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BRICS는 그 답을 찾는 무대다. 다만 이 무대 위에서 각국이 원하는 배역은 저마다 다르다. 러시아는 제재로 서방 결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일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기 때문에, BRICS 회원국 가운데 이 무대에 가장 목말라 있는 나라다.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BRICS 금융 체제까지는 원치 않고, 인도는 그런 중국에 더 얹매이는 것을 경계하며, 브라질은 제재 대응보다는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혁 쪽에 관심이 쏠려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계산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러시아는 2024년 BRICS 의장국을 맡아 카잔에서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이 논의를 앞장서 이끌어 왔다.

BRICS 내 금융 협력 사례로 가장 제도화된 형태는 신개발은행(NDB)이다. 러시아는 브라질·인도·중국·남아공과 함께 NDB를 세운 5개 창설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지분과 표결권을 동등하게 나눠 갖고 있으며(창설 당시 각 20%, 신규 회원 가입으로 현재 약 19.4%) 모스크바에 지역사무소도 두고 있다.²² NDB는 회원국 통화 표시 대출 비중을 늘려 2026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강조해 온 자국 통화 역할 확대라는 목표와 맞닿아 있다. 다만 제재는 러시아와 NDB의 관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다. 2023년 NDB는 러시아에서 자국 통화 채권 프로그램을 등록했지만, 이후 세계 금융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러시아 시장에서의 업무를 중단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취소됐다.²³ 최근에는 더 상징적인 변화도 있었다. 러시아는 2025년 NDB의 순환 의장국을 맡을 차례였지만, 이를 넘기고 브라질의 임기 연장을 지지했으며, NDB가 최근 발행하는 달러 표시 채권은 국제 자본시장 접근을 지키기 위해 자금 용도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출을 아예 제외하고 있다.²⁴ 즉 러시아는 여전히 NDB의 동등한 지분을 가진 창설국이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비상준비기금(CRA)은 단기 국제수지 압박에 직면한 회원국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다. 총 1,000억 달러 규모로, 중국이 410억 달러, 브라질·인도·러시아가 각각 180억 달러(18%), 남아공이 50억 달러를 약정했다.²⁵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몫을 분담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회원국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과 국가별 분담 한도에 따라 자금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큰 금액을 받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서방과의 관계가 끊어진 러시아로서는 이 조건 자체가 CRA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실제로 CRA는 설립 이후 러시아를 포함해 어떤 회원국도 실제 금융 지원을 위해 자금을 인출한 적이 없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러시아가 지분을 가진 NDB조차 제재 위험을 이유로 러시아 관련 사업을 축소”

나아가 BRICS 국가들은 자체적인 국경 간 결제·청산 인프라 구축도 모색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제안 가운데 하나가 BRICS Bridge로, 러시아가 2024년 BRICS 의장국으로서 주최한 카잔 정상회의에서 국경 간 결제 개선이라는 더 넓은 의제의 일환으로 제시됐다.²⁶ 이 구상은 mBridge 프로젝트가 탐색한 것과 비슷한 기술적 접근을 활용하며, 러시아가 겪고 있는 SWIFT 배제 문제를 직접 겨냥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다. 또 다른 제안인 BRICS Pay는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구상에서 출발했으며 주로 소매 결제 촉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정치적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완전히 작동하는 다자간 결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2025년 BRICS 정상회의에서는 브라질이 NDB와 연계해 회원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기금 설립을 제안해 기술적 승인을 받았다. 실제 운영 실적을 갖춘 기관은 NDB가 유일하며, CRA는 한 번도 실제로 가동된 적이 없다. 러시아로서는 이처럼 더딘 진전이 특히 아쉬운 대목이다. BRICS 금융 인프라는 서방 결제망 배제를 상쇄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다자간 통로이지만, 정작 러시아가 지분을 가진 NDB조차 제재 위험을 이유로 러시아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러시아가 직접 제안한 BRICS Bridge도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결론

결국 러시아가 그리는 그림은 하나로 요약된다. 자국 통화의 힘이 세지고, 결제 경로가 몇몇 나라의 뜻대로 흔들리지 않는 더 다극적인 통화 체제다. 러시아의 지난 10여 년은 지정학적 분절과 금융 제재가 한 나라의 국제통화 전략을 어떻게 통째로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그 손길은 대외 준비자산의 통화 구성부터 무역 결제 구조, 국경 간 결제 인프라까지 곳곳에 미쳤다. 다만 이 비전을 밀어붙이는 두 손의 온도는 서로 다르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 인프라 의존을 끊어내는 지정학적 셈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과도한 의존이 낳을 위험을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살핀다. 서로 모순된다기보다는 같은 목표를 향한 두 개의 다른 속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이 실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양자 무역과 준비자산에서 달러 의존을 성공적으로 떨어냈어도,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금융 체제의 구조적 제약 안에 갇혀 있다. BRICS라는 무대는 더 다원화된 금융 질서를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회원국들의 동상이몽 탓에 그 문은 아직 반쯤만 열려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에 견줄 금융시장도, 세계가 앞다퉈 쓰고 싶어 하는 통화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자리는 새로운 통화질서의 설계자라기보다는 그 질서를 앞당기는 촉매자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의 정책을 하나로 꿰면 러시아의 전략은 결국 세 가닥으로 수렴한다. 외국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금과 비서방 통화의 비중을 늘리는 준비자산의 주권화, 자국 통화 결제와 SPFS·CIPS·제3국 중개망을 동시에 깔아두는 결제 경로의 분산화, 그리고 디지털 루블과 규제된 디지털 자산으로 기존 은행망 바깥에도 길을 내는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이다. 이 세 가닥은 따로 놀지 않는다. 함께 꼬여, 금융 주권과 시장 효율성 사이에서 러시아가 벌이는 줄다리기를 지탱하는 하나의 밧줄이 된다. 제재는 러시아를 대안 통화와 결제 경로의 가장 적극적인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 통화 체제가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발걸음에 여전히 크게 달려 있다.

러시아는 달러 중심 금융 체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뚫어왔다. 그중 어느 하나도 홀로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길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러시아 또는 다른 BRICS 회원국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지도는 조금씩 넓어진다. 더 다원화된 국제 금융 체제로 가는 길은 더디고 굽이질 것이다. 그러나 지정학적·경제적 압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길을 향한 러시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Interfax. (2022, February 28). ЕС утвердил решение о заморозке активов ЦБ РФ [EU approved the decision to freeze the assets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

2 Bank of Russia. (n.d.). Analytical materials. cbr.ru/oper_br/analytics/

3 Bank of Russia. (2024). Annual report 2023.

4 Bank of Russia. International reser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Monthly values. cbr.ru/eng/hd_base/mrrf/mrrf_m/; TASS. (2026, February 6). Russia's international reserves up 10.43% in January 2026.

- 5 Kitco News. (2026, July 21). Russia's central bank sold 44 tonnes of gold in the first half of 2026; TASS. (2026, August 7). Russian international reserves down 0.01% in July.
- 6 Kudryashova, T. V., & Dolgikh, E. A. (2022). Золотовалютные резерв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 фактор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ости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Gold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a factor in ensuring the stability of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Beneficium*, (2), 66–72.
- 7 RBC. (2024, August 19). Силуанов назвал долю расчётов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в нацвалютах [Siluanov named the share of settlements between Russia and China in national currencies].
- 8 TASS. (2025, February 10). Посол РФ: около 90% прямых платежей с Индией приходится на нацвалюты [Russian ambassador: About 90% of direct payments with India are in national currencies].
- 9 Galeeva, D. (2024, August 21). Russia and Iran's new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 Gulf International Forum.
- 10 RBC. (2024, January 17). В Центробанке заявили о подключении 20 стран к российскому аналогу SWIFT [The Central Bank announced that 20 countries have connected to the Russian equivalent of SWIFT].
- 11 Reserve Bank of India. (2022, July 11).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in Indian rupees (INR) (A.P. (DIR Series) Circular No. 10).
- 12 RBC. (2026, February 5). FT описала схему перевода денег из России на \$100 млрд [FT described a scheme for transferring \$100 billion out of Russia].
- 13 OpenSanctions. (2025, October 28). Old Vector LLC — EU Financial Sanctions Files. The issuer of A7A5, a stablecoin backed by fiat ruble deposits in the bank accounts of PSB Bank.
- 14 Elliptic. (2025, August 14). OFAC targets use of stablecoins for Russian sanctions evasion; Elliptic. (2025, July 27). The rise of A7A5: the Ruble stablecoin now transfers \$1 billion per day. A7 LLC is 51% owned by Ilan Shor; the remaining 49% is held by Promsvyazbank (PSB).
- 15 Chainalysis, cited in: DL News. (2026, April 20). How crypto exchange Grinex shuttering poses 'serious damage' to Russian shadow financial economy (nearly \$100 billion in 2025 volume for A7A5); Forbes. (2026, March 30). Non-Dollar Stablecoins Hit \$1.2 Billion As Currencies Go On-Chain (Chainalysis: \$93.3 billion; Elliptic: over \$100 billion).
- 16 UK sanctions on A7 entities (2025, Ma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2025, August 14). OFAC targets use of stablecoins for Russian sanctions evas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5, October 23). 19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 17 Elliptic. (2026, July 29). The fall of A7A5: how sanctions strangled the ruble stablecoin; GovInfoSecurity. (2026, May 4). Grinex Collapse Won't Dent Russian Sanctions Busting; DL News. (2026, April 20). How crypto exchange Grinex shuttering poses 'serious damage' to Russian shadow financial economy.
- 18 CoinDesk. (2026, July 3). This sanctioned Russian stablecoin claims it processes billions, but blockchain analysts disagree; Bloomberg. (2026, July 4). Sanctioned Russian Stablecoin A7A5 Faces Volume-Inflation Claims as Real Use Stays Limited; crypto.news. (2026, July 6). Russia built a sanctions-proof stablecoin. The data says it is dying.
- 19 Bank of Russia. (2025, July 15). Large-scale introduction of digital ruble to begin on 1 September 2026.
- 20 Bank of Russia. (2026, June 25). Стейблкоины: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и [Stablecoins: Development directions in Russia]. Consultation paper. cbr.ru/Content/Document/File/193894/Consultation_Paper_25062026_52.pdf; data on stablecoin market capitalization and USDT/USDC share sourced by the Bank of Russia from CoinGecko.
- 21 Bank of Russia. (2026). Установлено регулирование криптовалют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Cryptocurrency regulation established for the Russian market].
- 22 New Development Bank. Shareholding. ndb.int/about-ndb/shareholding/;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2025, June). New Development Bank: Issuer Profile (equal 20% founding shareholding, diluted to about 19.4% with new members; regional office in Moscow).
- 23 New Development Bank. (2019, November 25). NDB registers RUB 100 billion bond programme in Russia.
- 24 Daiwa Capital Markets Europe. (2025, June). New Development Bank: Issuer Profile (Russia relinquished its scheduled 2025 NDB rotating presidency in favor of extending Brazil's term; recent USD bond proceeds are earmarked to exclude lending operations in Russia).
- 25 Trea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BRICS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2014, July 15). Fortaleza, Brazil (China: \$41bn; Brazil, Russia, India: \$18bn each; South Africa: \$5bn, of a \$100bn total).
- 26 BRICS. (2024, October 23). XVI BRICS Summit Kazan Declaration: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for just global development and security.

다시 꿈틀대는 두만강 러·북 도로교부터 서변포 구상까지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두만강 하구에서 다시 움직이는 북·중·러

2026년 여름, 조용한 국경 지대에 불과하던 두만강 하구의 풍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8월 22일 촬영된 한 상업 위성 영상은 두만강 하류를 가로지르는 신규 러·북 도로교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측 세관 단지를 가로지르는 주요 화물차 통행로가 포장되고 교량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로교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러시아 하산의 행정 당국 역시 도로교가 사실상 이미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주변 시설 작업만 마무리되면 9월 초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¹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분석 매체인 《북위 38도(38 North)》도 해당 도로교의 9월 개통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²

이 소식은 2024년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이래 빠르게 밀착해 온 러·북 관계에 두만강의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인 중국까지 더해져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읽힐 수 있다. 도로교 건설 과정만 보아도 그렇다. 신규 도로교는 2024년 6월 러·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2025년에 착공되어 2026년 6월 19일 개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 세관과 국경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단기간 내 개통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³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업이 7월 이후 예상보다 이른 속도로 진척되며 완공과 개통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도로교 개통을 두고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관찰만으로 그칠 수



2026년 러·북 자동차 도로교 건설 현장 © 러시아 교통부

는 없다. 이 다리의 등장으로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계산이 동시에 촉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두만강을 둘러싼 외교도 빠르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5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두만강 출해(出海) 문제를 다시 공식 의제로 올린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발표된 러·중 공동성명은 1991년 5월 16일 중·소 국경 협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지속할 것임을 명시했다.⁴ 이는 중국의 동해 진출 문제가 단순한 지방 개발 구상을 넘어 러·중 정상 차원에서 계속 관리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⁵

6월 8일과 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진행한 정상회담도 주목할 만하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⁶ 그런데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북한 측이 서변포·동변포 연결 수로(이하 서변포 운하) 사업을 중국에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한 공식 합의 사항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러·북 두만강 도로교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서변포 운하가 다시 논해지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두만강 출해구 확보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중국 측에, 서변포 운하가 이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 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게임 체인저’ 혹은 협상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26년 여름은 서변포 운하, 나아가 두만강 하구의 삼국 지정학 자체에 조

“신규 도로교의 완공과 함께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러시아·북한·중국의 치열한 계산이
동시에 촉발되고 있어”

용하지만 신속하고 중대한 변화가 물밑에서 이뤄진 계절이었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2026년 여름 두만강 하구에서 나타난 변화의 의미는 먼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원했던 동해 출구를 다시 협상 의제로 올리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도 러시아와 새로운 육상 연결망을 만들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철도·도로·항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세 나라의 접경지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두만강 하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로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해 왔다. 중국이 동해에 진출해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과 이와 반대로 한국에 새로운 물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낙관의 시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나라가 각각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북 도로교는 두만강 하구의 물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가?

9월 중 개통이 확실해 보이는 신규 러·북 도로교는 두만강에 추가되는 일개 교량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러·북 육상 교통망은 1959년 개통된 두만강 철도교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여기에 도로교가 추가되면 하산-나진 철도와 나진항을 아우르는 복합 물류 회랑이 두만강 하구에 형성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도 교량 건설 목적을 양국 간 화물 운송 확대와 운송비 절감, 안정적인 물자 수송 기반 확충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로교 인근의 하산 국경 검문소는 개통 초기 기준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과 2,850명의 인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됐으니, 규모도 작지 않다.⁷ 북한에도 의미가 상당하다. 철도와 달리 자동차 운송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다빈도 화물 운송과 인적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경제 연결이 중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상황을 두만강을 통해 완화하고, 러시아라는 또 다른 배후 경제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문제는 중국 관점에서 두만강 신규 도로교를 단순히 자국 접경 지역의 인프라 확충으로만 보기에는 그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데 있다. 중국이 절실히 원하는 동해 출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1860년 베이징조약 이후 중국이 동해 연안을 러시아에 할양하면서 두만강 최하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수로가 됐고, 중국은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훈춘에서 동해까지 직선거리는 15~20km에 불과하지만, 중국 선박이 동해를 드나드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1991년 중·소 국경 협정은 중국 선박이 일정한 조건 아래 두만강 하류를 통항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이 역시 자유로운 출해권이라기보다는 관계국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권리에 가까웠다. 여기에 두만강 자체의 낮은 수심과 퇴적 문제뿐 아니라 1959년에 설치된 러·북 철도교라는 물리적 장애물도 존재한다. 현재 철도교의 항행 여유고는 약 7m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형 상선의 통과가 어렵다.⁸

중국으로서는 동해 출해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 도로교가 들어서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도로교 제원만으로는 선박 통항을 위한 정확한 항행 여유고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가 항행에 미칠 장애 효과를 특정 수치로 단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규 교량 역시 대형 상선의 통항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볼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며, 기존 철도교 인근을 다시 가로지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두만강을 상업적 출해 수로로 개발하려 할 경우 협의해야 할 물리적 구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러·북 철도교 © 위키피디아

조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 분석 역시 철도교와 도로교의 낮은 여유고를 중국 선박의 통항을 제약하는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⁹ 따라서 항행에 영향을 미칠 도로교 자체의 높이와 별개로, 기존 두만강 철도교에 도로교까지 더해지면서 두만강 하류의 물리적 구조를 북한과 러시아가 더 강하게 장악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두만강의 수심을 확보하더라도 선박 규모가 커질수록 두 교량의 통항 조건과 안전 항행, 북한과 러시아의 허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러·북 도로교가 갖는 의미는 이런 점에서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에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육상 물류 축으로서 실질적·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에는 두만강을 통한 직접 출해의 현실적 한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조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변포 운하’라는 잠재적 우회로가 새로운 전략적 의미를 띠게 된다.

서변포 운하, 현실화 중인 ‘운하 사업’인가? 잠재적 우회 카드인가?

중국은 지금까지 두만강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과 함께 북한의 나진·선봉항이나 러시아의 자루비노·포시에트·블라디보스토크항을 이용하는 이른바 ‘차항출해(借港出海)’를 병행해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항만·철도·도로 및 통관 체계에 의존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른바 ‘서변포 운하’ 구상은 중국이 겪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의미를 띠는 사업이다. 서변포 운하는 중국 훈춘 방천 인근의 두만강에서 북한 나선 지역의 저지대인 조산리·

“ 기존 두만강 철도교에 이어 도로교가 더해지면,
두만강 하류의 물리적 구조를 북한과 러시아가
더 강하게 장악할 수 있어 ”

“서변포 운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 선박들이 두만강 최하류의 교량들을 우회하여 동해로 나갈 수 있어”

부포리 방향으로 약 3~5km의 수로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이 수로가 서변포와 동변포를 거쳐 조선만 또는 선봉만 방향으로 이어지면 동해 진출이 가능해진다 (지도 참조).

이 구상의 핵심은 거대한 운하를 새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러·북 국경 수로 최하류를 우회하는 데 있다. 만약 중국 선박이 훈춘 방천 부근에서 북한 측으로 진입해 서변포·동변포를 거쳐 동해로 나갈 수 있다면, 러·북 두만강 철도교는 물론 신규

도로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선박의 통과 경로와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러·북 관계가 심화하고 두만강 하구에 대한 양국의 통제가 강화될수록 이런 우회 노선의 전략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서변포 운하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 공개된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서도 관련 사업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정확한 노선과 수심, 갑문 및 준설 규모 등에 관한 정밀 조사 역시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서변포 운하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운하 사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향후 중국이 자국에 골칫거리인 두만강 출해 문제를 놓고 북한 및 러시아와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우회로이자 협상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변포 운하가 실제로 건설되지 않더라도 중국에는 러시아와의 두만강 통항 조건이나 극동 항만 이용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상 자체가 여전히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북한에도 중국과 러시아 양측으로부터 더 큰 경제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출구’, 러시아의 ‘관문 통제권’

그러나 중국이 갖는 새로운 ‘출구’는 러시아가 기존에 누리던 ‘관문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두만강 관문 통제권의 약화는 크게 네 가지 우려를 만들어낸다. 첫째는 러시아 극동 항만이 지닌 경제적 이해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자루비노·포시



서변포 운하 구상 개념도 © 저자 제작

“중국이 서번포 운하를 통해 러시아를 지리적으로 우회할 수는 있어도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우회하기는 어려워”

예트·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항만이 바라보는 중요한 배후 시장이다. 중국 동북 지역 화물이 북한 영토를 이용해 직접 동해로 나갈 수 있게 되면 일부 화물이 러시아 항만을 우회할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다. 러시아는 하산-나진 철도와 나진항 3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도로교까지 더하면서, 북한 나선 지역과 연해주를 철도·도로·항만으로 연결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서번포·동변포를 통한 새로운 출해 통로를 확보한다면 나선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러·북 도로교와 서번포 운하 구상은 서로 무관한 인프라처럼 보이지만, 더 넓게 보면 두만강 하구와 나선 지역의 공간적 주도권 및 물류 관문을 둘러싼 러·중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대표한다. 셋째는 안보 우려다. 중국의 소형 선박이 제한적으로 두만강을 통항하는 것과 중국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출해 수로를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질적으로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설령 상업적 이용에서 출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 해경·관공선 등의 수로 이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가 통항 선박의 규모와 종류, 관제 체계 등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마지막은 초국경 수문과 환경 문제다. 운하 자체를 북한 영토에 건설하더라도 두만강 본류를 준설하거나 물을 끌어들이면 유량·퇴적·사주·홍수위 등이 달라지고, 이는 러·북 국경 수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 내 운하 부지에 직접적인 허가권을 갖지 않더라도, 초국경 수자원과 환경, 국경 관리를 이유로 공동 조사와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이 서번포 운하를 통해 러시아를 지리적으로 우회할 수는 있을지라도, 러시아의 이해관계까지 우회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러시아가 ‘전면 반대’보다는 ‘조건부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의 동해 출해를 무조건 봉쇄하리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러·중이 2026년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관한 3자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사실만 봐도 그렇다. 만약 러시아가 중국의 동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면, 애초에 3자 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에는 중국의 동해 접근이 자국의 통제와 영향력 밖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중국의 출해를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통항 선박의 규모나 종류 제한, 군용 또는 특정 관공선의 이용 배제, 북·중·러 공동 관제, 수문·환경 공동 조사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 지역 화물의 일부를 러시아 극동 항만이거나 북극항로와 연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서번포 운하 구상이 실제 논의 단계로 발전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환경·수문 조사와 관제, 항행 안전 등에 참여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현



러시아 극동 최남단 지역에 있는 포시예트 항구 © 위키피디아

실적인 구도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양자 합의를 통해 러시아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보다는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중·러 3자 틀 안에서 중국의 출해 조건을 관리하는 편이 러시아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서변포 운하는 중국에는 ‘러시아 우회 카드’인 동시에, 러시아에는 중국의 동해 진출을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협상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서변포 운하가 마주한 또 다른 제약

물론 전략적 의미와 실제 건설 가능성은 구분해야만 한다. 서변포 운하를 개발하려면 중국 방천과 북한 조산리 사이 두만강의 준설과 수량 유지, 조산리·부포리 구간 굴착, 수위 확보를 위한 갑문, 서변포·동변포 연결, 동해 방향의 추가적인 굴착 등 수많은 공동 사업이 필요하다. 정확한 선형과 시설 규모도 정밀 수문·지형 조사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두만강 하류의 낮은 수심과 지속적인 퇴적으로 유지 준설이 필요하며 서변포·동변포 일대가 나선철새보호구 및 람사르 습지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제약이다.¹⁰ 갑문으로 두만강과 호소¹¹의 수문 체계를 분리하면 환경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비가 그만큼 증가하고 통항 능력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훈춘 화물을 도로나 철도로 나진·선봉항이나 러시아 자루비노항까지 운송하는 기존 방식보다 소규모 운하가 더 충분한 비용 우위를 보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건설 자금뿐 아니라 보험·선급·선박 등록과 국제 화주 유치 등도 제약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대형 상업 운하의 즉각적 건설이 아니라 향후 정치적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중·러 공동 조사, 소규모 실증수로 설치와 시험 항행, 제한적인 상업 운항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접근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변포는 아직 ‘운하’라기보다는 두만강 하구의 협상판에 놓일 수 있는 ‘히든 카드’에 가깝다.

두만강 하구를 둘러싼 북·중·러의 계산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026년 여름을 지나며 두만강 하구와 나선 지역에서 북·중·러 삼국의 이해관계가 빠르게 재배

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동북 2성(지린·헤이룽장)의 발전과 동해 접근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안정적인 출구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극동 항만과 연해주에 확보한 관문 통제력 약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중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러·중 양국 관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곧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러·북 두만강 도로교는 세 나라의 계산이 실제 공간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교차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 도로교는 북한에는 중국 외의 연결 통로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어줄 것이고, 러시아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전략 회랑이 되어줄 것이다. 반면 중국에는 두만강 직접 출해를 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 바로 그 결과로 서변포 운하와 같은 중국 측 우회 구상의 잠재적인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두만강 하구를 단순히 ‘중국의 동해 출해구’라는 단일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중국과 동해’라는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중국 훈춘-두만강-나진항-하산철도-러·북 도로교-자루비노·포시예트항이라는 지역의 실제 물류 인프라와 관문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또 세 나라가 어떤 관문을 연결하고 어떤 관문에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그 실제적 역학 관계를 봐야만 한다. 즉 두만강 하구를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인 물류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두만강 하구에서 진행되는 게임은 중국의 동해 진출이라는 ‘위협’으로도, 한국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망이라는 ‘기회’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시각은 한국이 두만강 하구의 역학과 무관한 수동적 관찰자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다. 물론 두만강 하구의 당사국인 러시아 및 북한과 모두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이 지역에 구체적 이해관계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영구적인 것으로 전제한 채 복지부동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변화하거나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만·철도·물류와 북극항로, 초국경 환경 관리는 한·러가 다시 협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산항을 비롯한 한국 항만과 나진-하산-연해주-북극항로를 연계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두만강 하구의 수문·환경 관리, 항행 안전 및 공동 관제 등 산적한 문제는 한국이 기술적·제도적 역량을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다자 협력 의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출해 역시 안보 위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 항만과 북한 나선 지역, 북극항로, 나아가 장래 한국의 동해권 항만에 어떤 물류 재편을 가져올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한국으로서도 두만강 하구 공간에 관한 실제적 지식에 근거해 전략적 이해를 심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러·북 자동차 교량의 개통은 어쩌면 국제면의 커다란 머리기사를 장식할 사

“ 단순한 ‘위협론’이나 ‘기회론’을 넘어
두만강 하구에서 진행되는 게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



2025년 9월 3일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위키피디아

안은 아닐 수 있지만, 장래 한·러 관계와 동북아 물류 질서가 어디에서 다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 변화하는 두만강의 물류 지형을 둘러싸고 지금 확충되는 육상 인프라부터 서변포 운하 구상의 향방까지 북·중·러 세 나라의 계산을 계속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На краю России возвели новый трансграничный мост,” 2026.7.24.
<https://rg.ru/2026/07/24/reg-dfo/novyj-mezhdunarodnyj-most-vozveli-okolo-znamenitogo-primorskogo-poselka-hasan.html>
- 2 Martyn Williams, “North Korea-Russia Bridge Could Open on Revised Deadline,” 38 North, 2026.8.24.
<https://www.38north.org/2026/08/north-korea-russia-bridge-could-open-on-revised-deadline/>
- 3 Martyn Williams, “Opening of New Road Link With Russia Unlikely in Near-Term,” 38 North, 2026.6.30.
<https://www.38north.org/2026/06/opening-of-new-road-link-with-russia-unlikely-in-near-term/>
- 4 연합뉴스, 「중·러, 北과 두만강 통한 동해 진출 논의…에너지 빅딜은 불발」, 2026.5.21.
<https://www.yna.co.kr/view/AKR20260521061400083>
- 5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дальнейшем укреплении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ё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об углублении отношений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дружб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6.5.20.
<http://kremlin.ru/supplement/6487>
- 6 중국 외교부, “Xi Jinping Holds Talks with Kim Jong Un,” 2026.6.8.
https://www.fmprc.gov.cn/mfa_eng/xw/zyxw/202606/t20260609_11940480.html
- 7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оссию и КНДР соединит новы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мост」, 2026.4.21.
<https://mintrans.gov.ru/press-center/news/12617>
- 8 최장호, 「두만강 하구 활용을 위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북한안보 3차 프로그램 발표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6.6.19.
- 9 「138년의 기다림, 시진핑이 평양에서 열어젖힌 ‘동해 15km’의 빗장」, 프레시안, 2026.6.1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61010194824058>
- 10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2018.
<https://rsis.ramsar.org/ris/2343>
- 11 호소(湖沼)는 호수와 늪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이다. 서변포·동변포는 바다와 이어졌다가 분리된 얇은 석호로, 주변 습지와 연결되어 있다. (편집자 주)

육경은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한국 여행, 러시아인 마음을 사로잡다

김현택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명예교수

요즘은 서울의 지하철 또는 도심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듣는 일이 낯설지 않다. 젊은 세대는 물론,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심지어 삼대가 함께 움직이는 그룹도 보인다. 한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관광 수요가 지속적 증가 추세이고, 2025년 총 22만 5천 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에는 못 미치나 오늘의 양국 간 공식 관계나 직항편이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다.

한편,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는 사뭇 대조적이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상’이 일었던 2019년 최대 45만 4천 명에 달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최근 몇 해 평균이 2만 3천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양 국민의 상대국 방문 숫자가 그 나라를 향한 관심과 호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때, 한-러 양 국민의 상호 인식에 상당한 굴절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셈이다. 8월 호 「RIO 초대석」에서는 작년 9월 모스크바에 부임해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관광공사 육경은 지사장을 만나본다.

러시아인 국외 관광의 전반적 흐름, 그중에서 특히 한국 관광에 대한 수요, 한국 방문 시 주요 관심 분야와 현지에서 이들이 발견한 매력 등에 관한 관광 전문가의 분석에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 외에 상대국에 대한 이해, 고정 관념 타파,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상호 소통 잠재력의 확대 등 민간 차원의 중요한 공공외교 수단으로 관광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견해도 흥미롭다. 인터뷰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유선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사진은 RIO의 포토 에세이 코너 작가 콘스탄틴 코코시킨이 ‘모스크바 시티’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촬영했다.



‘모스크바 시티’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지사 사무실에서 © RIO

어려운 시기에 모스크바 지사장직을 맡았다. 러시아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

학부와 대학원에서 러시아 관련 전공을 했고 한국관광공사 입사 후에는 국제 관광, 국내 관광,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201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작년 9월 지사장으로 부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만 해도 한·러 양국 간 인적 교류는 가파른 상승세였다. 한국에서 이른바 ‘블라디보스토크 현상’이 일어났고, 한류 인기에 힘입어 러시아인들의 한국 방문도 꽤 증가했다. 그런데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두 나라 국민의 상호 이동이 위축됐다. 그나마 한국을 찾는 러시아 여행객 숫자가 최근 들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은 러시아 관광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약 34만 명의 러시아인이 한국을 방문하며 고점을 찍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2022년에는 방문객이 2019년 대비 약 18%에 불과한 수준으로 폭 떨어졌다. 그러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71%의 성장세를 보였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22만 5천 명이 한국을 찾았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러시아를 여행하는 외국인, 특히 서구권 출신 관광객 유입이 대부분 막혔다. 러시아를 방문하는 한국인 숫자도 대폭 감소했는데, 최근 몇 년의 추이는 어떤가?

이전에 비행기로 두 시간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수 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르쿠츠크 등에 정기 또는 하계 특별 항공편이 취항할 때는 러시아로 향하는 한국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보다 32% 정도 많은 45만 4천 명에 이르기도 했다. 2019년에 그랬다. 그런데 직항편이 끊긴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인 연평균 숫자는 겨우 2만 3천 명 정도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관광 산업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많을 텐데,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 출신 관광객의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러시아를 찾는 외국인 여행자 비중이 큰 나라들은 어디인가?

러시아여행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를 여행한 외국인 중에서 비중이 큰 상위 5개국은 중국(51%), 사우디아라비아(4.6%), 투르크메니스탄(4.5%), 튀르키예(4.2%), 독일(4.0%) 등이다. 아랍에미리트,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러시아 지도 옆에 선 육경은 이사장 © RIO

요즈음 러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는 어디인가?

올해 상반기에 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 지역으로 향하던 러시아 사람들의 여행 루트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양상이 현저히 달라졌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인이 선호하는 휴양 관광지 튀르키예 여행은 여전히 강세이고, 중동행 항공 노선이 재분배되면서 중국, 이집트, 베트남 노선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한류 열풍 속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러시아 여행객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중 러시아인의 비율은 1.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를 보면, 방한 외국인 총 1,071만 명 중 러시아인은 1.13% 정도인데, 작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규모다. 방한 러시아 관광객 숫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규모의 71.5% 수준에 도달한 상태여서 나는 유의미한 현상으로 본다. 직항 노선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러시아 관광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국을 경유해야 하고, 게다가 무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은 사전에 K-ETA를 신청해야 하는 추가 절차도 생겼다.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러시아 관광객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국외로 떠나는 러시아 여행객 중 한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자국의 여러 도시를

“ 직항 노선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러시아 관광객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어 ”

러시아와 연결하는 직항편을 활발히 운영 중인 중국은 11.4%, 전통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태국은 7.1%,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은 5.2%를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권 나라로 향하는 러시아 여행객의 분포 양상은 이들이 선호하는 관광 유형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더 결정적인 요인은 직항 노선의 존재 여부, 비자 면제 등과 같은 이동의 편의성이나 간편한 입국 절차다.

거주지역, 연령대, 성별 등 측면에서 한국을 찾는 러시아 관광객의 인구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2024년 한국의 외래 관광객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러시아인의 성별과 나이는 20대 여성 17.1%, 30대 남성 13.4%, 30대 여성 12.9%, 20대 남성 10.2% 등의 분포를 보인다. 20~30대 여성과 남성이 전체 방문객의 절반이 넘는 53.6%를 차지한다. 한국에 이미 와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여행할 의향이 있는 러시아인들은, 거주지역으로 구분하면 유럽 지역 러시아보다 극동과 시베리아 쪽이 우세하다.

러시아인들은 어떤 형태의 관광을 선호하나?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행 정보 채널과 예약 플랫폼은?

개별자유여행(FIT, Free Independent Tour)을 선호한다. 그리고 언어 장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어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1일 단위의 테마, 또는 지역 여행을 즐기는 복합적인 방식이 보편적이다.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이전에 이용하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는 접근이 어려워져서, 현재는 OZON.travel, One Two Three Travel Agency, T-Bank Travel 등 러시아 토종 OTA를 주로 활용한다. 최근 1년 동안에는 루블 결제가 가능한 중국 OTA인 Trip.com의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러시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한국 관광 테마는 무엇인가?

한국관광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쇼핑, 자연 경관 감상, 식도락 체험, 고궁·역사 유적 방문, 박물관·전시 관람,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순서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가 높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과 비교할 때 K-뷰티 중심의 쇼핑과 자연 경관 관광 수요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관광 또한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로 러시아 관광객의 8~9% 정도가 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이 의료 관광 국가로 갖는 매력은 무엇인가? 러시아인의 관심이 특별히 높은 진료 분야는?

짧은 대기 시간, 비용, 품질 등 측면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판도가 아주 높다. 러시아인들의 진료 비중이 높은 분야는 건강 검진(41.1%), 암 등 중증 질환 치료(24.3%), 피부과(18.7%), 성형외과(15%) 등이다. 특히 건강 검진과 피부과가 매년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

“ 쇼핑, 자연 경관 감상, 식도락 체험, 고궁·역사 유적 방문,
박물관·전시 관람, 전통문화 체험 등의 순서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가 높아 ”

는데, 이는 예방 차원의 건강 유지와 외모 관리 등에 러시아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한 러시아 내 인지도가 빠르게 확산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광 또는 비즈니스 여행차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에 서비스가 가능한 건강 검진과 간단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무 중인 육경은 이사장 © RIO

러시아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핫플’이나 도시는 어디인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인기가 당연히 으뜸이다. 여러 도시 중에서 부산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일반 관광객뿐 아니라 방한 경험이 있는 관광 전문가, 기자들과 만나보면 부산 방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이 많다.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인근의 자연 경관,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특화된 음식, 용궁사나 범어사 등 불교 사찰, 센텀시티 같은 대형 쇼핑몰, 수산시장 등 볼거리가 많다는 것이다. 바다를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에게 부산은 한국 여행 중 필수 방문 코스다.

러시아 여행객만의 특별한 관심사나 여행 패턴 같은 게 있는가? 이번 여름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열흘을 보낸 러시아 여행자에게 자연은 훌륭한데 해변 휴양 시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행과 휴가 방식이 다르다는 말인가?

실제로 한국은 휴양형 관광 중심지가 아니고,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관광에 적합한 나라다. 러시아인 다수가 선호하는 전통적인 관광은 모든 서비스가 일괄 포함된 해변가 호텔 또는 리조트에서 휴식하며 즐기는 장기 체류 관광이다. 한국에 특화된 관광 유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특징을 사전에 인지하고 한국에 온 러시아 관광객은 만족도가 높지만, 다른 나라에서 체험한 휴양 관광을 기대했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고급 리조트일지라도 별도의 해변에서 사적인 휴식을 즐기는 게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세부 정보를 외국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하고 있다.

정치·외교 차원의 한·러 관계가 현재 녹록치 않다. 관광은 산업적 측면 외에 상대국에 대한 이해, 고정 관념 타파, 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자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상호 소통 잠재력의 확대 등 민간 차원의 소중한 공공외교 수단이다. 지금 같은 시기에 ‘관광을 매개로 하는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 유지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러시아인들과 대화 중 이따금 한국인들은 러시아에서 온 관광객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복잡한 국제 관계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러시아 관광객을 반기지 않거나 차별 대우하는 일들도 있어서 한국의 분위기를 묻는 것이다. 한국인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태도 또한

“한 해 2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한국 여행 중에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한 한국의 이미지와 인상은 정량적 평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

이들의 관심사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온 러시아 기자에게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저 없이 ‘한국인의 친절함과 따뜻함’이라고 답했다. 이 러시아 기자의 답변에서 우리는 관광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 시기에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상대국에 대한 피상적 이미지와 두 나라 사람이 직접 만나면서 형성된 구체적인 느낌과 인상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현지 여행 중에 발견한 그 나라의 실제 모습과 호감이 미치는 파장 효과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한 해 20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이 한국 여행 중에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한 한국의 이미지와 인상은 정량적 평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소중한 공공외교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양한 통로의 민간 교류를 이어가고, 소통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 다양한 차원의 문화 간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건 다름 아닌 관광이 아닐까?

지사장으로 최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나이, 성별 등의 범주로 세분화한 다음, 구체적 테마를 선정해서 러시아인들에 다가가는 전략이다. 또 러시아 주요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주류 사회의 고객층(이전에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면서 관광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첫 번째 사례는 러시아 대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K-뷰티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고, 이를 매개로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였다. 러시아판 ‘올리브영’에 해당하는 Golden Apple사와 공동으로 10~40대 여성을 겨냥한 뷰티 인플루언서 초청 ‘언박싱’ 행사를 진행했다.



대표적 화장품 체인 Golden Apple과 함께 진행한 행사에 참가한 러시아 인플루언서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 도시와 특정 공간에 관한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에 여러 연령대의 독자들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루기도”

이 분야에서 유명한 러시아 인플루언서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K-뷰티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고, Golden Apple의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서 관련 콘텐츠를 확산했다. 현지 여성들이 가장 주목하는 러시아 브랜드와 협업한 결과 K-뷰티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의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 관광 테마와 결합한 뷰티 관련 행사는 처음 시도해 봤다는 이 러시아 기업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아주 흡족해 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 문학을 관광과 연결하는 캠페인이다. 10~50대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러시아 최대의 온·오프라인 서점 치타이-고로드와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서점 온라인 플랫폼에 한국 문학 번역 도서 코너를 별도로 개설해서 사전 홍보한 다음, 한국 문화·문학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는 토크콘서트 시리즈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국 도시와 특정 공간에 관한 현지 전문가들의 강의에는 여러 연령대의 독자들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뤘다. 치타이-고로드 측은 행사 후 한국 관련 도서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국 관련 도서와 관광을 연계한 치타이-고로드와의 공동 행사 홍보물
© chitai-gorod.ru

모스크바 지사가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러 양측 관광 관련 당사자 간 긴밀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모스크바 지사의 핵심 업무는 외국인 유치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 의료 관광 유치업체, 의료기관,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현지 한국학 전문가가 연사로 나선 치타이-고로드 토크콘서트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B2B 사업의 1차 수혜자는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는 러시아 대형 여행사이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한국 국내 여행사, 호텔, 가이드와 쇼핑 업계 등 관광 생태계 전반이 누리게 돼”

Event) 관련 기관 등 한국의 관광업계와 러시아 아웃바운드 여행사 및 관련 업체 사이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는 일이다. 러시아 현지의 여행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뷰티와 도서를 활용한 테마 관광 캠페인이 B2C(Business to Consumer)에 속한다면, 이보다 비중이 더 큰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의 1차 수혜자는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는 러시아 대형 여행사이며, 결과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한국 국내 여행사, 호텔, 가이드와 쇼핑 업계 등 관광 생태계 전반이 누리게 된다.

인적 교류가 그렇듯 비즈니스 분야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러시아 관광객과 파트너 업체의 관심사를 면밀히 살피면서 트렌드를 읽고, 이를 한국 방문 관광 상품에 반영하려는 작업이 선순환을 이뤄야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자면 러시아 파트너와 한국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러시아 소비자에 판매할지, 어떤 상품을 제시해야 할지, 그리고 타국의 관광 상품과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양국 의료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B2B 미팅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현지 관광업체 대상 한국 성형외과 기술 소개 행사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 러시아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조사에서
4~5점을 선택하는 비율이 97.4%에 달하고,
관광 목적의 재방문 의향도 91%로 높아 ”

러시아인들이 한국 여행 후 느끼는 호감도나 한국 재방문을 원하는 비율은 높은 편인가?

러시아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외국인보다 높다.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조사에서 4~5점을 선택하는 비율이 97.4%에 달하고, 관광 목적의 재방문 의향도 91%나 된다. 설문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답한 영역은 한국 음식, 뷰티, 영화 등이고, 호감을 느끼게 된 배경으로는

친절함,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다양한 음식 문화 등을 꼽았다. 개인적 취향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나 럭셔리 관광 상품 등은 미흡하다는 일부 반응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는데, 지방에서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러시아판 포브스(Forbes)지와 공동 진행한 한국 연수·유학 관련 행사장에서
©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여행 전문 에이전트들 외에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청소년 단체 등도 두 나라 사이의 인적 교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시범적으로 추진할 협력 사업이 있을까?

우선 두 나라의 자매결연 도시들이 관광 분야의 실제 경험과 추진 중인 정책 등을 공유하는 협력 사업부터 재개하면 좋을 것 같다. 서울과 모스크바의 관계 기관이 도시 마케팅 전략과 관광 산업 성공 사례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거



한국 관광 안내 책자 앞에 선 육경은 지사장 © RIO

나, 부산 서면의 의료 관광 특화 사업 성공 사례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구상 중인 의료 관광 발전 전략에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는 것 같은 프로젝트는 양측 모두에게 흥미로울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유학을 희망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단순한 유학생 유치 차원을 넘어, 두 나라 파트너 교육 기관들이 호혜적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갈 방안이 있을까?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러시아 청소년 교류 증진 프로그램이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는 방학을 이용한 국외 캠프 프로그램 참가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 외에 영어 캠프 참가, 청소년 대상 문화 체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전과 달리 극동 지역뿐 아니라 모스크바와 우랄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러시아 여행객이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

한국은 무비자 방문국이지만, 지금은 사전에 K-ETA 신청이 필요하다. 그런데 러시아의 미르 카드로는 수수료 결제가 안 되니 문제다. 제3국에 계좌를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아 K-ETA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여행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단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우리 벤처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우패스(WOWPASS)로 결제, 환전, 충전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향후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 한국인의 러시아 여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인에게 러시아 여행이 주는 특별한 매력은 있을까?

러시아에 오면, 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건축물, 무수한 세계 명작을 소장한 주요 박물관들의 독특한 아우라, 발레를 비롯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 등을 만날 수 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의 두 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교해 보는 테마 여행도 재밌고, 정교회 전통과 이슬람 문화가 나란히 공존하는 카잔을 방문하면 러시아가 수많은 민족과 문화, 그리고 종교를 품은 흥미로운 나라라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역사적 유적을 둘러보고 싶다면, 모스크바 인근 고도들을 연결하는 유명한 관광 벨트 ‘황금 고리’ 탐방이 제격이다. 자그마한 옛 도시들을 찾아가는 중간중간 드넓은 평원에서 서 있는 자작나무 군락을 바라보며 전형적인 러시아 전원 풍경에 빠져드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한겨울 설경에는 절로 탄성이 나올 것이다.

향후 양국 간 쌍방향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

자유롭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관광 교류에 큰 흐름이 생긴다. 여러 사정 때문에 중단된 직항 노선이 재개될 경우, 상대국으로 향하는 양 국민의 여행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자연과 함께 역사적 유적을 둘러보고 싶다면,
모스크바 인근 고도들을 연결하는 유명한 관광 벨트
‘황금 고리’ 탐방이 제격”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볼거리와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모스크바 전역으로 확산하는 메가 프로젝트의 짜임새와 디테일은 상당한 수준”

관광은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창조 산업의 한 분야다. 러시아 관광 산업의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러시아 정부는 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 내국인 국내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2030 관광 산업 발전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및 지방 정부 차원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역사적 유산 복원 및 관광 루트 조성, 신규 숙박 시설 건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관광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두루 포함한다.

개인적으로는 모스크바시 관광청이 주도하여 특정 테마 관련 프로그램을 시내 곳곳의 공원, 중심가, 미술관, 체육관, 박람회장 등에 다채롭게 펼치는 사업이 꽤 흥미로웠다. 하나의 큰 주제를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볼거리와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짜임새와 디테일은 상당한 수준이다. 계절마다 ‘모스크바의 여름’, ‘모스크바의 겨울’ 같은 명칭을 내걸고 도시를 축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는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

지금까지 수행한 프로젝트 중 보람을 느낀 사례를 든다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느끼는 보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고리키 공원 입구에 조성된 2026년 시즌 ‘모스크바의 여름’ 풍경 © foto.mos.ru

“일견 무뚝뚝해 보이는 러시아 사람의 표정 이면에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개방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현지 생활을 하면서 새삼 느껴”

러시아 양국 사이의 민간 교류를 이어가고 이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 통로를 유지한다는 사명감이다. 지난 1년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두드림의 시간이었고, 이제는 양 국민의 공통 관심사를 더 꼼꼼히 살피면서, 러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설 각오다.

이런 시기에 러시아로 여행을 떠나도 괜찮을지 누군가 묻는다면……

한국의 주류 언론이 전하는 러시아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다. 정치·안보 이슈를 떠나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는 노력은 항상 중요하다. 일견 무뚝뚝해 보이는 러시아 사람의 표정 이면에 따뜻한 인간미와 함께 개방적인 성향이 있다는 점을 현지 생활을 하면서 새삼 느끼고 있다. 온라인과 인공지능(AI) 덕분에 우리가 무한대의 정보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개인 각자가 오감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느끼며 즐기고, 또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은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산으로 계속 남을 거다.

한국의 러시아 관련 전공자가 관광 분야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겠는가?

비즈니스 기회는 내가 경험한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는 좋은 발상과 추진력에서 나온다. 러시아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젊은 세대가 러시아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관심 분야에 도전하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러시아의 K-팝 공연 기획자,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자 등인데, 기존 사업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남이 만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RIO



‘모스크바 시티’의 현대식 건물을 배경으로 © RIO

코코시니크의 재발견

문화 코드와 창조 경제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문화 코드

올해 4년째를 맞이한 러시아 전통문화 전시회 ‘스보야시(Svoiiasy)’가 지난 5월 15일 모스크바 크렘린 역사박물관 전시 콤플렉스(1812년 조국전쟁 박물관 건물)에서 개막하여 약 4개월간 열린 이후 오는 9월 7일 폐막한다. 전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문에 따르면, ‘스보야시’는 러시아 전역에서 엄격한 큐레이터 심사를 통과한 100명의 화가와 디자이너, 장인(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전통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스보야시’ 전시회는 “현대 예술 실천의 언어를 통해 러시아 문화의 근본 토대인 땅, 빵, 말, 시간, 그리고 영원을 탐구한다.”¹ 이에 따라 “빵의 인류학과 말의 신성한 힘”에 관해 소개하는 전시관이 한쪽에 마련돼 있고, “인간과 자연, 우주의 일체성을 상기하는” ‘타임캡슐’ 전시관이 다른 한쪽에 조성돼 있다. 하지만 올해 ‘스보야시’ 프로젝트에서 언론 매체에서만 아니라 관람객 사이에서도 압도적 존재감을 뽐내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전시물은 다름 아닌 러시아 여성의 전통 머리 장식을 거대하게 재현해 놓은 ‘차르(황제) 코코시니크’였다. 이는 ‘차르 코코시니크’가 올해 전시회에서 중심 예술품이 됐다는 주최 측 홍보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차르 코코시니크’는 모스크바에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모스크바 장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116명의 참가자가 합동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10,800개의 구슬과 200m의 면사 끈, 127개의 장식 부품으로 200시간 이상 걸려 조립된 8㎡의 거대한 규모에서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러시아에서 600년 이상 걸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얗게 표백된 아마사 끈을 박아 넣는’ 옛 기법에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절대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차르 코코시니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스보야시’ 전시회는 러시아 문화의 근본 토대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코코시니크의 의미와 기능을 재발견·재확인하고자 기획·조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시품의 배치 구조와 관람 동선에서도 잘 뒷받침된다. 다시 말해 ‘차르 코코시니크’가 전시회 대미를 장식하듯이 순서상 맨 마지막 자리에 단독으로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코코시니크 작품들이 ‘차르 코코시니크’ 앞이나 주변에 점점이 놓여 있다는 사실도 올해 ‘스보야시’ 전시회의 중심 위치와 핵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하게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회 제목에 사용된 러시아어 단어 ‘스보야시’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스보야시’는 현대 러시아어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구어에 속하지만, ‘자기 집’이나 ‘고향’,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뜻한다²는 점을 고려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전시회 프로젝트 제목에 동원됐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스보야시’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번 전시회의 중점이 러시아의 전통문화로 돌아가고자 하거나 러시아의 고유한 전통과 가치를 회복·보존·전승하고자 하는 열망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코시니크가 이번 전시회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러시아 고유문화를 재발견하고 계승·보존·유포하려는 노력에서 코코시니크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



‘차르 코코시니크’ © RIO

“코코시니크는 ‘러시아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시각적 상징물 중 하나이자, 수 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역사와 지위, 미학을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

한다. 실제로, 코코시니크는 ‘러시아적인 것’이나 ‘러시아성(Russianness)’을 대표하는 중요한 시각적 상징물 중 하나이자, 수 세기 동안 러시아에서 역사와 지위, 미학을 반영하는 문화적 코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코코시니크가 러시아 이미지 ‘수출’의 일부를 구성했던 배경도 바로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다.

애국주의

‘스보야시’ 전시회에서 ‘차르 코코시니크’의 존재와 위상이 말해주듯이, 코코시니크는 수 세기에 걸친 러시아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대표하는 강력한 시각적 상징이자 문화적 코드로서 최근 몇 년간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특히, 2025년 10월 2일 ‘발다이’ 국제 토론클럽 기조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기 시작한 젊은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알려지자, 러시아 사회에서 코코시니크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났다. 당시 푸틴은 최근 젊은이들이 코코시니크나 다른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거나 바나 레스토랑, 기타 여가 시설을 찾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런 경향이 러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덧붙였다.³ 푸틴의 이런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당일 코코시니크에 대한 관심이 3.2배 증가했고, 그 직후 며칠간 러시아 전역에서 여성용 전통 머리 장식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특히, 푸틴의 고향인 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주에서 코코시니크 판매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목이 쏠렸다.⁴

푸틴의 한마디가 불러일으킨 코코시니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뜨거운 열기는 단순히 여성용 전통 복장의 판매율 급증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코코시니크로 대표되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기울이는 관심과 지지는 현재 집단적 서구 세력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위기 상황에서 특히 더 요구되는 러시아 애국주의의 강력한 발현이자 러시아 민족 정체성이나 자의식의 자발적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 스타일리스트 마리야 포멘코는 코코시니크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기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되새기며 애국심을 되살린다”⁵라고 논평했다. 이처럼 오늘날 러시아 여성 패션계에서 코코시니크는 애국심 고취와 함께 민족 통합에 이바지하는 대세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경향은 푸틴의 발언이 나온 이후 두 달 보름 만에 열린 12월 19일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 연말 행사에서 여성 언론인들이 갖가지 크기와 모양의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등장한 데서도 발견됐다.⁶ 예를 들면,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지 기자인 마리아 코룟코바는 온통 붉은색 정장 차림에 커다란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돋보였다. 그녀 외에도 이날 많은 여성이 각자 개성을 살려 크고 작은 코코시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 행사에 코코시니크를 쓰고 참석한 마리아 코룟코바 기자 © 《로시스카야 가제타》

니크를 보란 듯이 착용하고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움직임은 얼마 전에 젊은 여성들의 코코시니크 착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푸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시로도 읽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이것은 대통령과 만나는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행사에서 자신의 개인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동이자 자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표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직통 전화' 연례행사에 참석한 여성 기자들만이 국가 주요 행사장에서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나와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6월 6일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SPIEF)에서는 러시아 북서부 볼로그다주 전시관의 여성 진행요원들이 화려한 모양의 코코시니크 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나와 시선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올해 SPIEF 행사장에서는 코코시니크를 착용한 로봇이 등장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통문화와 현대적 첨단기술의 접목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로서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 이처럼 최근 러시아에서 열풍처럼 번지는 코코시니크 유행은 지난 8월 22일 '러시아 들녘' 축제의 부대행사로 모스크바 '포클론 나야 고라'에서 열린 제1회 전 러시아 '코코시니크 달리기' 대회로도 이어졌다.⁷ 러시아 전국에서 600명 이상이 참가하여 5km 거리를 코코시니크를 쓰고 달리는 이날 행사의 취지와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제정한 2026년 '민족 통합의 해'를 기념하는 데 있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코코시니크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상징 요소이자 문화 코드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코코시니크는 오늘날 러시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 통합’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상징 요소이자
문화 코드의 한 부분으로 작용 ”

기원 논쟁

코코시니크 바람은 멀게는 2018년 여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코코시니크를 쓰고 나온 사람들의 응원 복장에서부터 불기 시작하여 가깝게는 2026년 여름 ‘코코시니크 달리기’ 대회에 나선 사람들의 갖가지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모스크바에서 개막한 ‘스보야시’ 전시회가 오는 9월 7일 막을 내리고 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민족지학 박물관’에서 11월 3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러시아 코코시니크’ 전시회가 열리면서⁸ 코코시니크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푸시킨국립미술관 관장(2023.3~2025.1)을 지낸 미술학 박사 엘리자베타 리하초바가 지난 6월 18일 비디오 블로거 파벨 코스틴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코코시니크의 외국 기원설이 러시아 사회에 불고 있는 코코시니크 열풍에 찬물을 끼얹으며 큰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해당 인터뷰에서 밝힌 리하초바의 견해에 따르면, 코코시니크는 “모던 시대의 예술가들이 15세기 이탈리아 그림 속 모자들을 모방해” 고안했다고 한다.⁹ 달리 말하면, 그녀의 주장은 코코시니크가 러시아에서 기원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코코시니크를 둘러싸고 형성돼 온 러시아 민족 정체성과 자존감, 애국심에까지 상처를 입히는 셈이었다.

코코시니크의 토착 전통을 부정하는 듯한 리하초바의 발언은 반대파들에게서 강력한 반발과 반론, 비판을 쏟아 불러일으켰다. 먼저,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리하초바의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미술학자들의 이런 발언과 입장이 민족 문화에 대한 무례의 표현이자 “우리에게서 고대 유산과 코코시니크를 빼앗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¹⁰ 특히, 비탈리 보로딘 ‘안보·반부패투쟁 연방 프로젝트’ 대표는 러시아 검찰총장실에 리하초바의 코코시니크 관련 발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요청 근거로 보로딘은 리하초바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으며” 그 안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만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개입 징후”까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¹¹ 더 구체적으로 그는 “이런 발언 뒤에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서 있는가?”라고 물었다. 다시 말해 보로딘은 리하초바가 국외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았는지, 외국 은행에 계좌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식으로 그녀의 자금 출처 파악도 검찰청에 요청했다. 이는 리하초바가 외국 자금을 받아 활동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가 러시아에 해로운 ‘외국 에이전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검찰총장실은 리하초바의 발언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적 판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로딘의 조사 요청을 기각했다.¹²

이와는 별도로, 코코시니크 관련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리하초바의 발언을 반박하는 논평과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예를 들면, 2015년 ‘러시아 코코시니크 박물관’을 설립한 작가이자 장식·응용 미술 연구자인 블라들레나 그린블라트는 코코시니크가 기혼 여성들이 착용하던 러시아의 전통적인 축제용 머리 장식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의 모든 기혼 여성은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진 고대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코코시니크를 16세기 말부터 착용했다.”¹³ 한편, 코코시니크라는 단어 자체는 알을 품는 암탉을 뜻하는 구어인 ‘코코시’에서 유래했다. 이 머리 장식에서 솟아오른 뿔 모양은 닭의 뿔을 연상시켰고, 알을 품는 암탉은 예로부터 민속에서 여성적 본원, 즉 보호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를 상징해 왔다.¹⁴ 이런 점에서 보면, 코코시니크는 러시아성, 그중에서도 러시아 여성성의 강력한 상징적 기호임을 알 수 있다. 프로이센 출신인 예카테리

“프로이센 출신인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재정립하고자 하면서 코코시니크 등 러시아 민속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 2세가 러시아인으로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재정립하고자 하면서 러시아 민속 소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녀가 자신의 공식 초상화에서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우연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창조 경제

러시아 민족 전통과 문화 코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코코시니크는 러시아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창조적 영감의 풍부한 원천이 됐다. 예를 들면, 코코시니크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교회와 저택 등 다양한 건축물의 ‘러시아 스타일’ 형성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또한, 코코시니크는 18세기 말 표트르 드로진의 「코코시니크를 쓴 상인 부인의 초상화」(1796)부터 이반 크람스코이의 「황후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초상화」(1881), 콘스탄틴 마콥스키의 「러시아 의상을 입은 아가씨의 초상화」(1910)에 이르기까지 많은 러시아 화가의 초상화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이와 함께, 코코시니크는 세르게이 다길레프의 ‘발레 뤼스’가 파리 무대에서 선보인 ‘러시아 스타일’의 중요한 시각적 상징이었고, 이 과정에 이반 빌리빈과 나탈리야 곤차로바 같은 화가들이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유명한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는 20세기 초반 런던 등 외국 공연을 통해 코코시니크와 러시아 전통 의상을 전 세계 예술계와 패션계에 널리 알리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¹⁵

한편, 코코시니크는 현재 러시아에서 점점 더 활발해지는 창조 경제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세련되고 매력적인 상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 흥미롭다. 이제 코코시니크는 박물관



코코시니크를 쓴 예카테리나 2세 초상화 © 위키피디아



Аксессуары, которые дополнят любой образ.

‘코코-코코시니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 koko-kokoshnik.ru

전시관이나 연극·발레 무대를 넘어서서 패션과 액세서리 매장에 나와 불티나게 팔리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선호 상품이 됐다. 요즘 러시아에는 젊은 나이에 이 분야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성공 사례를 기록한 창조 경제 기업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로스토프나도누 출신의 아나스타시야 말류치코바도 그런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코코시니크가 큰 인기를 끌자, 이를 계기로 코코시니크를 러시아 문화 상품으로 개발해 판매할 사업을 곧바로 구상해 실행하기 시작했다.¹⁶ 그로부터 8년 후인 현재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고, 코스트로마에서 수제 코코시니크와 다른 러시아 의상을 제작해 자신의 온라인 매장 ‘코코-코코시니크(koko-kokoshnik.ru)’를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말류치코바의 사례에서처럼 러시아 동화 등 민속 전통에서 창조적 영감을 얻어 제작되는 코코시니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 러시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25년 푸틴 대통령의 언급으로도 코코시니크 구매 열기가 뜨거워졌지만, 이와 관계없이 요즘 러시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패션을 완성하는 데서 코코시니크가 필수 품목으로 수요가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 흥미로운 사실은 코코시니크 유행이 확산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제품이 대량 판매되는 현상의 이면에 올해 65세로 인기 역주행 중인 대중 가수 나테즈다 카디세바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이다. 카디세바는 공연 무대에서 코코시니크를 쓰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자주 선보이는데, 이런 장면이 젊은 관객과 시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이 코코시니크를 직접 구매해 실제로 착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러시아를

“러시아 동화 등 민속 전통에서
창조적 영감을 얻어 제작되는 코코시니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 러시아에서 급증해”

대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온라인 유통 기업 오존(Ozon)의 시장 동향 조사 결과에서 잘 드러났다.¹⁷ 이처럼 카디세바가 자신의 공연을 통해 러시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유행을 젊은 층 사이에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이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자신만의 패션을 완성해 하는 데 일조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2026년 『나데즈다 카디세바: 코코시니크 속의 르네상스』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더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의 저자는 ‘90년대 가요계’의 상징이었던 카디세바가 어떻게 현대 ‘슬라브 미학’의 아이콘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멋진 반전 이야기의 배경에서 중심 요소가 된 것은 바로 러시아 코코시니크였다. 이런 식으로 코코시니크가 민속 전통과 대중문화, 패션 산업이 한데 녹아드는 창조 경제 구조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변모하고 진화할지 흥미롭다.

2026년 7월 초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작가 마을 페레델키노를 방문했을 때 저자는 그곳 기념품 판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 직원이 단순미가 돋보이는 현대적 감각의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가워 사진 촬영까지 요청했다. 그 이후 이 글을 준비하면서, 당시 그 아가씨가 쓰고 있던 아담한 자주색 코코시니크가 앞서 소개한 말류치코바의 업체 ‘코코-코코시니크’에서 만든 제품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디세바가 몰고 온 코코시니크 유행을 타고 구매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요컨대, 그녀가 착용한 코코시니크도 지금 러시아에서 유행을 타며 재발견되고 있는 코코시니크 열풍이 낳은 결과물 중 하나이거나 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페레델키노 기념품 판매장에서 직원이 현대식 코코시니크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다. © RIO

- 1 “Выставка «СВОЯСИ. Традиции будущего».”
<https://shm.ru/shows/42530/>
- 2 <https://archaisms.academic.ru/3436/%D1%81%D0%B2%D0%BE%D1%8F%D1%81%D0%B8>
- 3 “Путин оценил возрождение моды на кокошники среди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https://www.kommersant.ru/doc/8081416>
- 4 “Рост продаж кокошников в Петербурге и Ленобласти возрос после речи Путина.”
<https://www.kommersant.ru/doc/8098038>
- 5 “«Прекрасный тренд»: стилист поддержала слова Путина о моде на кокошники.”
<https://rtvi.com/news/prekrasnyj-trend-stilist-podderzhala-slova-putina-o-mode-na-kokoshniki/>
- 6 “На прямой линии с Путиным заметили журналисток в кокошниках.”
https://www.rbc.ru/life/news/694525eb9a79475c8f6fc2a8?utm_refer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7 “Забег в кокошниках: праздник спорта и красоты!”
<https://otradnaya.bezformata.com/listnews/zabeg-v-kokoshnikah/163138886/>
- 8 <https://ethnomuseum.ru/events1/exhibitions/future/russkij-kokoshnik/>
- 9 https://www.youtube.com/watch?v=W9_6gDeUTEo
- 10 “Захарова: У нас пытались отобрать античность и кокошники.”
<https://www.rosbalt.ru/news/2026-07-21/zaharova-u-nas-pytalis-otobrat-antichnost-i-kokoshniki-5642267>
- 11 “На бывшую главу Пушкинского музея заявили в прокуратуру из-за слов о кокошнике.”
<https://www.kommersant.ru/doc/8815714>
- 12 “Проверка на исконность: спор о кокошнике как политический жанр.”
<https://topwar.ru/286299-proverka-na-iskonnost-spor-o-kokoshnike-kak-politicheskij-zhanr.html>
- 13 “Бородин попросил Генпрокуратуру проверить высказывания Лихачевой о кокошниках.”
<https://www.forbes.ru/forbeslife/564927-borodin-poprosil-genprokuraturu-proverit-vyskazyvaniia-lihacevoj-o-kokoshnikah>
- 14 “О кокошниках, культуре и о невежественной дикости, ей противостоящей. Владлена Гринблат развенчивает мифы о русском кокошнике.”
<https://www.kp.ru/daily/277797.5/5274999/>
- 15 “Всегда модный русский кокошник.”
<https://platkinina.ru/blogs/journal/vsegda-modnyy-kokoshnik>
- 16 “Kokoshnik: Not Just For Fairy Tales.”
<https://www.themoscowtimes.com/2019/05/28/kokoshnik-not-just-for-fairy-tales-a65777>
- 17 “Почему в России скупают кокошники: разбираем новый тренд.”
<https://seller.ozon.ru/media/trends/pochemu-v-rossii-skupayut-kokoshniki-razbiraem-novyy-trend/>

러시아 창조 산업 동향과 전망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에서 ‘아트마스터스’까지

안나 바실렌코 자립형 비영리 단체 ‘아트마스터스’ 부대표

2025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작은 게임 스튜디오가 전 세계 게임업계를 뒤흔들었다. 외부 투자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직원 150명 남짓으로 버텨온 회사가 9년간 만들어온 세계적인 히트 게임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의 정식 버전(1.0)을 마침내 출시한 것이다. 놀라운 건 매출이나 이용자 수만이 아니다. 이 게임은 아예 새로운 장르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 냈고, 지금은 액티비전(콜 오브 듀티), 번지(마라톤), 텐센트 계열 스튜디오(아레나 브레이크아웃)를 비롯한 세계 최대 게임사들이 앞다퉈 그 장르를 베끼고 있다. 이 게임을 만든 ‘배틀스테이트 게임즈’는 2014년 니키타 부야노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창업했다. 대형 배급사의 투자도,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다.¹ 대신 ‘죽으면 가진 장비를 전부 잃는다’라는 극한의 긴장감을 앞세우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하드코어 슈팅 게임을 만들었다.

숫자가 그 성과를 보여준다. 정식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었다. 이는 게임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공식 판매 수치다. 같은 기간 이용자들이 게임 속 가상의 지역 ‘노르빈스크’에서 보낸 시간을 모두 더하면 1억 3,500만 시간,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무려 1만 5,400여 년에 달한다.² 스팀(Steam) 한 플랫폼만 따져도 누적 판매량이 약 160만 장, 매출은 약 4,73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 게임은 스팀 말고도 자체 판매 채널을 갖고 있어 실제 전체 매출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식 출시 다음 날에는 스팀 동시 접속자가 4만 7,800명까지 치

“2025년 러시아 창조 경제는
8조 2,600억 루블, 러시아 GDP의 4.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창출,
이 비중은 8년 사이 절반 넘게 증가한 것”

쫓았다.³ 그 결과 정식 출시 첫해인 2025년 시장조사기관 뉴주(Newzoo)의 집계에서 PC 게임 전체 플레이타임 기준 세계 11위에 올랐다. 오버워치2, 마블 라이벌스, PUBG, 에이펙스 레전드보다 더 높은 순위다.⁴ 2025년 새로 나온 게임 중에서는 플레이타임 1위를 차지했다.⁵

이제 이 게임을 따라 만든 ‘추출 슈팅(extraction shooter)’ 장르 자체가 전 세계 게임업계의 대세가 됐다. 죽기 살기로 파밍(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아이템 등을 반복해서 모으는 행위)한 장비를 들고 무사히 탈출해야 하는 이 게임 방식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인디 스튜디오 하나가 세계 최대 게임사들이 뒤쫓는 표준을 세운 흔치 않은 사례다. 러시아 게임업계에서는 좀처럼 없었던 일이다. 어떻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팀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답을 찾으려면 게임 한 편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달라진 러시아 창조 산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숫자로 보는 러시아 창조 산업

러시아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창조 경제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8조 2,600억 루블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2%에 해당한다. 2017년 이 비중은 2.8%에 불과했으나, 8년 사이 절반 넘게 늘어난 셈이다.⁶ 러시아 정부는 이 비중을 2030년 6%, 2036년 7.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⁷ 창조 산업이라고 하면 흔히 영화나 음악을 먼저 떠올리지만, 러시아식 분류는 훨씬 넓다.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광고, 건축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GDP 기여도가 커졌다고 해서 문화·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자체가 그만큼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분야가 실제로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뜯어봐야 진짜 그림이 보인다. 고용 규모도 상당하다. 고등경제대학교(HSE) 산하 통계 및 경제 지식 연구소는 2023년 기준 창조 경제 종사자를 460만 명(전체 취업자의 6.2%)으로 집계했다. 이 부문 종사자 중 청년 비중은 32.5%로 경제 전체 평균(28.8%)보다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가 몰리는 산업이라는 뜻이다.⁸ 다만 그늘도 있다. 매출의 약 80%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10개 지역에 몰려 있고,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약 7만 5천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경제개발부의 추산이다.¹⁰ 「타르코프」 같은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려면, 이 인력 공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별 지형: 게임 산업이 주도

2025년 창조 경제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소프트웨어·게임 개발이 39.29%로 압도적 1위다. 광고·PR(15.08%), 공연예술(11.31%)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건축·도시계획(6.97%), 미식(6.22%), 여가·엔터테인먼트(4.72%), 미디어(4.4%), 영화·시리즈(3.56%) 순으로 뒤를 잇

분야	전략적 특징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39.29%
광고·PR	15.08%
공연예술·음악	11.31%
건축·도시계획	6.97%
미식(가스트로노미)	6.22%
여가·엔터테인먼트	4.72%
미디어·언론	4.4%
영화·시리즈	3.56%
기타(패션, 공예, 보석 등)	8.29%*

분야별 창조 산업 내 부가가치 분포 © TACC

는다.¹¹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세 분야는 비디오게임, 온라인 동영상, 애니메이션이다. 성장을 기준의 순위가 아니라, 디지털 유통 구조와 예술·기술 융합 인재 수요, 하나의 상품을 여러 시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에서 선정했다.

「타르코프」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3년 출시된 「아토믹 하트」도 소비에트 레트로퓨처리즘이라는 독특한 미학을 앞세워, 엑스박스 게임패스 동시 출시에 힘입어 2년여 만에 전 세계 누적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겼다.¹² 두 게임의 공통점은 뚜렷하다. 서구 게임을 흉내 내지 않고 러시아만의 색깔, 즉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존 감각이나, 소비에트 시대의 시각적 기억 등을 정면에 내세워 세계 시장에서 통했다는 점이다.

산업 저변도 넓다. 고등경제대가 2026년 2월 소개한 공동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게임 시장 규모는 약 23억 달러, 게임 이용 인구는 1억 600만~1억 1,000만 명으로 추산된다.¹³ 프로그래머뿐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 그래픽 아티스트, 애니메이터, 작곡가, 음향 전문가까지 필요한 산업이라, 젊은 인재에게는 진입로가 특히 다양하다.

TMT 컨설팅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온라인 영화관(OTT) 시장은 1,890억 루블로 전년 대비 39% 성장했다. 유료 구독 매출이 1,826억 루블에 달했지만, 광고 매출은 오히려 13% 줄었다. 이는 시청자가 정기적으로 지갑을 여는 쪽으로 시장 자체가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¹⁴ 유료 가입 가구는 2,300만 가구를 넘어섰고, 아시아·터키·라틴아메리카 콘텐츠로 목록을 넓히며 서구 콘텐츠의 빈자리를 다양하게 메우고 있다.¹⁵

“러시아 창조 경제를 주도하는 게임 산업은
러시아만의 색깔, 즉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생존 감각이나,
소비에트 시대의 시각적 기억 등을 내세워 세계 시장을 석권”

애니메이션도 변화 추세가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보인다. 러시아애니메이션협회(AAKR)가 2025년 3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 애니메이션 상업 시장 규모는 128억 루블로, 이 중 러시아 기업 매출이 123억 루블을 차지했다. 외국 기업 매출은 4억 1,000만 루블에 그쳤는데, 2022년 이후 외국 기업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다.¹⁶ 모스크바 스튜디오들의 성장은 더 가파르다. 2019년 39억 루블이던 매출이 2024년 83억 루블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고, 전국 시장에서 모스크바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0%에서 67%로 커졌다. 수출에서는 모스크바 비중이 더 커서 전국 애니메이션 수출 매출의 55%를 차지한다.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도 빠르게 성장해, 2024년 애니메이션 브랜드 관련 매출은 약 800억 루블에 달했는데 이 중 60% 이상이 방영이 아니라 완구·문구 같은 라이선스 상품에서 나왔다.¹⁷

게임과 온라인 동영상의 중앙 무대의 이야기라면, 애니메이션은 지방에서도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

사례 — 하바롭스크의 ‘메치탈료트’, 모스크바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하바롭스크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메치탈료트’는 2018년부터 독자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제작해 왔다. 극동·북극개발공사는 2022년 1월, 이 스튜디오가 만든 시리즈 「등을 맞대고」가 중국 스트리밍 플랫폼 12곳에서 동시 공개됐다고 발표했다.¹⁸ 이 진출은 2022년 서방과의 전면적 단절보다도 앞선 일이었다. 공지에 몰려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수출 경로를 스스로 개척했다는 뜻이다. 스튜디오는 극동 지역 기술파크 ‘아무르’의 입주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아트마스터스’ 애니메이션 부문 결선 준비에도 참여하고 지역 창조 산업 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중국 내 매출 등 구체적 재무 성과는 공개돼 있지 않지만, 지방 스튜디오도 수도로 옮기지 않고 해외 파트너·시청자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서방과의 단절 이후: 빈자리와 새로운 기회

서방 기업의 철수는 양면적이었다. 익숙한 서비스가 빠지면서 러시아 제품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지만, 동시에 개발 도구와 유통망에 대한 접근은 아주 어려워졌다.

먼저 혜택을 구체적으로 보면, 게임 플랫폼 ‘VK Play’가 대표적이다. 스팀 의존도가 높았던 러시아 게임 유통 시장에서 VK Play는 등록 계정 3,850만 개, 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1,640만 명까지 몸집을 불렸다. 모기업 VK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서구 엔진(유니타·엔리얼)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자체 게임 엔진 개발에 10억 루블을 투자했고, 2024년 베타, 2025년 정식 버전을 목표로 내걸었다.¹⁹ 수출 지원도 성과를 냈다. 모스크바 비디오게임 수출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한 해에만 국외 행사 8건에 참가하고 수출 계약 36건, 10억 루블 이상을 따냈다.²⁰

반대로 손실도 뚜렷했다. 게임 엔진 쪽에서는 에픽게임즈(엔리얼 엔진)가 2022년 3월 러시아 내 게임 내 결제·거래를 차단했고, 유니티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기업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러시아·벨라루스 개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수개월씩 밀렸다. 한 매체는 개발자별로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 미지급금이 있다고 보도했다.²¹ 콘솔 시장에서는 소니가 플레

이스테이션 스토어 접근을 막고 하드웨어 출하를 중단했고, 「그란 투리스모 7」의 러시아 출시를 취소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판매를 중단했다.

더 근본적인 손실은 사람이었다. 러시아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 자체 집계로도 2022년 한 해에만 IT 전문인력 약 10만 명(전체 IT 인력의 약 10%)이 국외에 머물게 됐다. 이 가운데 80%는 러시아 기업을 위해 원격으로 계속 일한다지만, 앞서 짚은 연간 7만 5천 명의 인력 공백은 이런 유출과 무관하지 않다.²² 하드웨어도 문제였다. 최신 그래픽카드·반도체는 러시아 내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병행수입이 유일한 통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한 해 월평균 병행수입 규모는 약 19억 달러에 달했고, 공급망은 중국·아랍에미리트·튀르키예·카자흐스탄 등 우호국을 경유하는 구조로 재편됐다.²³

이런 손실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아시아 시장 진출이다. 게임 쪽에서 가장 뚜렷한 무대는 중국이다. 2026년 8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게임 전시회 'ChinaJoy'에 러시아는 1C 게임 스튜디오, HeroCraft 등 게임사 12곳이 게임 20여 종을 출품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했다. 중국 게임 시장은 이용자 6억 8,300만 명, 2025년 매출 3,507억 8,900만 위안(약 498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7.68% 성장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시장이 됐다.²⁴ 인도 쪽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주러 인도 대사는 2025년 12월 영화·드라마 공동제작 확대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현장의 인도 프로듀서들은 언어 장벽과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양쪽의 소극성을 실질적인 걸림돌로 꼽는다. 아직은 의향 표명 단계이지, 중국처럼 구체적인 수출 계약과 참가 기업 수가 뒷받침되는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아시아를 '진출할 시장'으로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의 흐름도 있다. 유럽이 남긴 공급자의 자리를 아시아가 메우는 흐름이다.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만드는 공장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중국산 인공지능(AI) 가속기가 서구 반도체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1C 게임 스튜디오는 지난해 ChinaJoy 참가 이후 온라인 슈팅 게임 「칼리브르」를 중국 배급사와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고, 영화 쪽에서도 2026년 5월 러시아·중국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영화 공동제작 확대에 합의했다. 뜻밖에도 한국 또한 이 흐름의 한 축이다. 미국·유럽의 대러 콘텐츠 공급이 끊기고 현지 한류 인기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게임·웹툰·음원 등이 오히려 러시아 시장 안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²⁵ 즉 아시아는 러시아 창조 산업의 수출 시장이면서, 동시에 유럽이 남긴 공급의 빈틈을 메우는 부품·콘텐츠 공급자이기도 한 셈이다.

러시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체계적인 지원은 법제화로 뒷받침된다. 「러시아연방 창조(예술) 산업 발전에 관하여」 제330호 연방법은 2024년 8월 제정돼 2025년 2월 5일 발효했다. 이는 창조 산업의 기본 개념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법이다. 이 법은 창조 산업 사업자 등록부도 함께 신설했는

“아시아는 러시아 창조 산업의 수출 시장이면서,
동시에 유럽이 남긴 공급의 빈틈을 메우는
부품·콘텐츠 공급자”

“법과 기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력 공급의 공백을, ‘아트마스터스’ 같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인재 발굴 체계가 메워”

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우대 대출과 각종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다. 창조 산업은 이렇게 국가 프로젝트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 안에 공식 편입됐고,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이 부문의 GDP 기여도를 2030년 6%, 2036년 7.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 지원 통로는 성격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문화이니셔티브기금(PFCI)이 공연·전통문화·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면, 인터넷발전연구소(IDI)는 영상·블로그 콘텐츠·소프트웨어·게임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전담한다. IDI가 콘텐츠 지원에 배정한 예산은 한 해 250억 루블 안팎으로 추산되며, 14~35세를 겨냥한 청년 콘텐츠 공모전도 별도로 운영한다.²⁶ 등록제와 클러스터, 지원금만으로 저절로 수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원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그 안에서 발주와 반복적인 거래가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이 모든 제도가 수렴하는 지점은 사람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창조 경제 성장 목표를 이루려면 연간 약 7만 5천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5년 말 고등경제대 토론에서도 학교·전문대·대학과 고용주를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법과 기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인력 공급의 공백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든 인재 발굴 체계가 메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자가 이끌고 있는 ‘아트마스터스’다. 2025년 이 프로젝트는 국가 프로젝트 ‘청년과 아이들(Youth and Children)’에 공식 편입되며, 민간이 주도해 온 인재 발굴 대회가 국가 청년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앞서 살펴본 법·등록부·기금이 창조 산업의 ‘자금과 제도’를 만들었다면, ‘아트마스터스’는 그 제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드는 쪽을 맡고 있는 셈이다.

제2의 「타르코프」는 누가 만드나: ‘아트마스터스’

‘아트마스터스’는 매년 열리는 대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재능을 발굴하고,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쌓게 하고, 젊은 전문가를 실제 발주처와 연결한다. 교육-프로듀싱-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앞서 살펴본 법과 등록부, 기금 같은 여러 지원책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운영 기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16만 명 이상이 챔피언십에 참가했다.²⁷ 2026년 제7회 대회에는 3만 명 이상이 등록했고, 국제 부문 ‘아트마스터스 오픈’에는 140개국·지역에서 3,500건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주 연령대는 만 18~35세이며, 청소년 부문(만 14~17세)도 별도로 운영돼 대학 진학 전부터 애니메이션·편집·디자인·음악 창작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²⁸

‘아트마스터스’ 아카데미는 대회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완한다. 이론은 실습으로 뒷받침되

며, 인력 플랫폼 'PRO'는 젊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와 고용주의 채용 광고를 연결한다. '직업 속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는 영화-미디어, 희곡 전통, 음악을 차례대로 다루며 참가자가 전문가 커뮤니티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분장 아티스트, 미디어 작곡가, 가상세계 디자이너, 무대 진행을 총괄하는 스테이지 매니저 같은 새로운 전공이 주요 예술대학에 개설된 것도 같은 흐름이다.

사례 — 다닐 모틴: 챔피언에서 여러 포맷의 프로젝트로

2022년 '아트마스터스 프로듀서' 부문 우승자 다닐 모틴은 자신의 기획 『러시아 문화 역사(A Brief History of Russian Culture)』를 한 가지 형식에 가두지 않았다. 2023년에는 3,000부 넘게 팔린 단행본으로, 2024년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각각 내놓았다.²⁹ 이 과정에서 대통령문화이니셔티브기금(PFCI), 대중 지식 보급단체 '즈나니예', 인터넷 발전연구소(IDI) 등의 지원을 받았다. 대회 우승이 자금·제작 지원으로, 다시 여러 형태의 완성품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아트마스터스'가 내세우는 '대회에서 시장으로'라는 구호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별도 재무 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다.

성과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아트마스터스' 측이 밝힌 내부 설문에는 따르면 결선 진출자의 95%가 직업적 지위가 향상됐고, 3명 중 1명이 업계 선도 기업에 취업했다.³⁰ 의미 있는 피드백이지만, 설문 방법론이 공개돼 있지 않아 독립적인 효과 측정치로 보기는 어렵다.

첫 프로젝트의 자금은 별도의 과제다. PFCI는 5년간 16회 공모에 11만 5천여 팀이 참여해, 1만 1,752개 프로젝트에 490억 루블 이상을 지원했다.³¹ '아트마스터스'와의 협력을 통해 '아트마스터스 지역' 영화 부문 우승자는 장편 영화 제작 프로듀싱센터 인증서를, 연극 부문 우승자는 160만 루블을 받는다. 액셀러레이터를 거쳐 최대 1억 루블 지원에 도전할 기회도 있지만, 모든 우승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³²

맺음말: 다음 「타르코프」는 어디서 나올까?

러시아 창조 산업은 '문화적 틈새'에서 체계적인 경제 우선순위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스튜디오가 세계 게임 업계의 장르 하나를 새로 쓰고, 하바롭스크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모스크바를 거치지 않고 중국 시청자에 닿는 지금의 흐름은 정부 지



「아토믹 하트」 © Mundfish

원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젊은 인재 양성 체계가 함께 맞물려야 나올 수 있는 결과다.

오늘날 핵심 질문은 러시아가 창조 경제를 가질 것이냐가 아니라, 그 잠재력을 얼마나 빨리 실현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케이프 프롬 타르코프」나 「아토믹 하트」의 등장 여부는 아트마스터스처럼 재능과 직업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1 Tracxn. "Battlestate Games." 2026.7.
- 2 GameSpot. "Escape From Tarkov Has Reached A Major Sales Milestone." 2025.12.18; Dualshockers. "Escape From Tarkov Hits 1 Million Sales." 2025.12.15.
- 3 Raijin(raijin.gg). Steam Data. 2026.8.23.(기준)
- 4 GamesRadar+. "Escape from Tarkov is the 11th most-played game on PC according to new report." 2026.5.4.
- 5 Insider Gaming. "Escape from Tarkov Was The Most Popular 'New PC Release' in 2025." 2026.3.12.
- 6 ТАСС. "Вклад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ВВП РФ в 2025 году достиг 8,26 трлн рублей." 2026.2.6.
- 7 The Russian Government. "Mikhail Mishustin holds strategic session on creative economy development." 2025.6.24; ПРАЙМ. "МЭР завершило работу над 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2026.4.6.
- 8 НИУ ВШЭ ИСИЭЗ. "Креативный сектор России в цифрах: 2024." 2024.12.16.
- 9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Татьяна Илюшникова: развитие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сегодня — мировой тренд." 2025.7.3.
- 10 ТАСС. "МЭР: для роста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нужно привлекать 75 тыс. специалистов." 2025.10.8.
- 11 ТАСС. "Вклад креатив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ВВП РФ в 2025 году достиг 8,26 трлн рублей." 2026.2.6.
- 12 TweakTown. "Atomic Heart reaches 10 million players." 2025.5.30.
- 13 НИУ ВШЭ. "Гейминг в России 2026." 2026.2.6.
- 14 ТМТ Консалтинг.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ов — 2025." 2026.4.6.
- 15 Интерфакс.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онлайн-кинотеатров за год вырос на 39% до 189 млрд рублей." 2026.4.6.
- 16 Ассоциация анимационного кино России(AAKR).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и 'Анимация'." 2025.3.
- 17 Компьютерра. "Российские анимационные студии делают ставку на бренды, ИИ и экспорт." 2026.7.17.
- 18 КРДВ. "В Кита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мультсериала, созданного перв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студией анимации «Мечталет»." 2022.1.18.
- 19 CNews. "Два года VK Play." 2024.4.25; RB.RU. "13 млн пользователей, 16,5 млн аккаунтов: VK Play подвела итоги первого года работы." 2023.4.25.
- 20 Известия(finance.mail.ru). "Код из дома: Россия повезет в Китай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видеоигр." 2026.7.2.
- 21 WN Hub. "Unity Asset Store has not paid developers from Russia and Belarus for months." 2022.9.22.
- 22 Interfax. "About 100,000 IT specialists left Russia in 2022." 2022.12.20.
- 23 Byte/RE. "В РФ ограничили параллельный импорт компьютерной техники." 2026.5.4.
- 24 Известия(finance.mail.ru). 2026.7.2. 위 자료(ChinaJoy 기사)와 동일.
- 25 Кабельщик. "Корейский контент покоряет мир: ремейки, адаптации, успешные кейсы на мировом и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ах." 2023.6.20.
- 26 Ведомости. "Бюджет ИРИ в 2026 году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почти 26 млрд рублей." 2025.9.29.
- 27 ArtMasters. "Победителей Чемпионата в категории 'Юниоры' наградили в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е."
- 28 ArtMasters. "Более 30 тысяч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VII Чемпионат «АртМастерс»." 2026.5.13.
- 29 ArtMasters. "Блогеры Чемпионата ArtMasters 2026."
- 30 ГТРК «Башкортостан».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чемпионате АртМастерс." 2026.3.6.
- 31 ВЗГЛЯД. "Президентский фонд культурных инициатив за пять лет поддержал более 11 тыс. проектов." 2026.5.17.
- 32 ArtMasters. "Результаты отборочного этапа 'АртМастерс Регионы'." 2025.12.26.

런던을 매혹한 러시아 미술

유럽 모방에서 독자 예술로

글 _ 나탈리아 드로노바 러시아 역사가

번역 _ 이태훈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오늘날 러시아 미술은 이반 아이바좁스키와 일리야 레핀 같은 거장들을 통해 유럽 미술사의 한 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구는 러시아 미술을 유럽 미술을 뒤늦게 따라가는 변방의 미술로 여겼다. 러시아 화가들의 기량은 인정했지만, 작품에서 러시아만의 개성과 독창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평했다. 1862년 런던 만국박람회에서 러시아 회화는 이런 인식을 뒤집지 못했다. 당시 비평가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는 러시아 미술이 아직 유아적인 단계에 있으며 독창성이 없다는 유럽의 편견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불과 10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1872년 5월 1일 사우스 켄싱턴의 런던 국제박람회 미술 전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 미술은 영국 관람객과 언론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860년대 러시아 미술계에서는 제국미술아카데미의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 화가들이 등장했고 러시아 역사와 민중을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황실과 국가기관도 미술을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개인 수집가들도 러시아 미술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1872년 런던 국제박람회는 이런 변화가 한데 모이는 무대가 됐다. 《모닝 애드버타이저》는 러시아 작품들이 영국은 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 화가들까지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도록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미술 전시는 단순히 그림을 소개하는 자리를 넘어 문화적 외교의 장이었던 셈이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낯설지 않다. 한국의 영화와 음악, 문학과 미술 역시 오랫동안 서구 문화의 주변부에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독자적 문화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기관과 민간의 후원, 예술가와 수집가, 전시와 번역, 해외 비평과 관객의 반응이 서로 맞물릴 때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150여 년 전 러시아가 런던에서 마주했던 고민은 오늘날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개돼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번 호 「역사 프리즘」은 《루스키 미르》 2023년 11월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1872년 런던 국제박람회에서 러시아 미술이 어떻게 유럽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본다. 19세기 국제박람회의 변화와 러시아의 참가 과정, 제국미술아카데미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 황실과 개인 수집가의 역할, 그리고 출품작을 둘러싼 영국 비평가들의 반응을 따라가며 러시아 미술이 ‘유럽의 모방’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 독자적 예술로 인정받게 된 과정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예술이 국경을 넘어 소개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작품 자체뿐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국가의 전략, 후원과 전시의 방식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런던, 새로운 박람회를 꿈꾸다

1851년 런던에서 최초의 만국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고, 동시대인들은 이를 ‘대박람회’라고 불렀다. 1855년에는 파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1862년에는 다시 세계 각지의 사람이 런던으로 모여들었고 5년 뒤에는 파리가 또다시 상업과 과학, 기술과 예술의 성대한 축제가 펼쳐지는 세계의 무대가 됐다. 박람회를 거듭하면서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경험을 쌓아 갔다. 관객들도 화려한 볼거리에 열광했지만 서로 다른 수많은 전시물이 뒤죽박죽 배치되면서 점차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가 막을 내릴 무렵에는 박람회 개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요 참가국인 영국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런던 사우스켄싱턴. 1871~1874년 국제박람회 © 《루스키 미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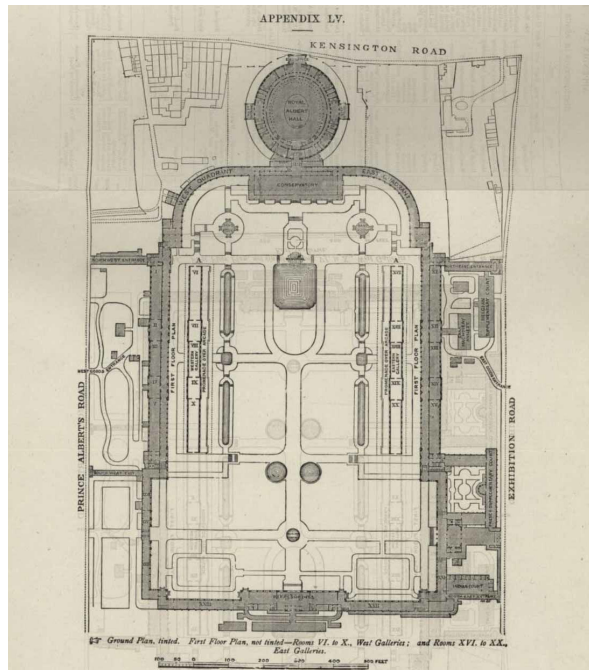
“영국은 기존의 만국박람회와 별도로 1868년 새로운 박람회 프로젝트를 발표”

이 야심 찬 구상을 실행하는 데 앞장선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기존의 만국박람회와 별도로 1868년 새로운 박람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애초 10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큰 비중을 뒀다. 순수미술 작품부터 대량 생산품까지 모두 예술의 영역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예술을 미술관 속 작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을 둘러싼 사물과 산업 생산물까지 폭넓게 바라본 것이다.

또한 인류가 이룬 진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여 주기 위해 기존처럼 국가별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런던 박람회는 국가별 독립 전시관을 두지 않았다. 상을 수여하는 제도도 없었다.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증표이자 충분한 영예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박람회 준비에는 영국 전문가들과 외국 대표들이 참여했다. 대규모 행사가 열릴 장소로는 런던의 사우스켄싱턴이 선정됐다. 이곳은 1862년 만국박람회가 열린 지역으로 이후 여러 박물관이 들어서며 과학자와 예술가가 모여드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아쉽게도 이런 웅대한 구상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었다. 박람회 사업은 첫해에만 수익을 냈고, 이후에는 수익이 점차 줄어들더니 결국 수익을 기대하기조차 어려워졌다. 1873년 미술관 인근에 문을 연 요리학교는 설립에 들어간 상당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요리의 인기는 높아지는 반면 순수미술은 관람객을 잃어 갔다.

창립자와 주최 측 사이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람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있는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는가, 대중을 교육하는 데 있는가, 아니면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을 찾지 못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조차 점차 흥미를 잃었다. 결국 애초 계획했던 열 차례의 박람회 가운데 실제로 열린 것은 1871년부터 1874년까지 단 네 차례뿐이었다.



1871~1874년 런던 국제박람회 개최지의 전체 배치도 © 《루스키 미르》

러시아다운 미술을 찾아서

러시아는 새로운 런던 박람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봤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런던에서 참가 제안이 들어오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1870년에는 유능하고 명망 높은 인물이었던 러시아 재무부 상공업 국장 알렉산드르 부 톱스키가 박람회 준비위원회의 러시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런던에서 열린 박람회 개막 공식 행사에도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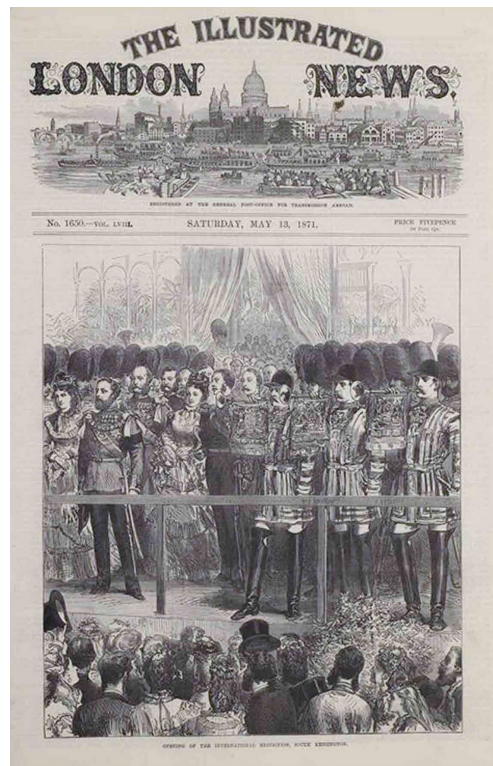
하지만 처음에는 러시아의 참여가 상징적인 수준에만 머물렀다. 1871년 박람회에 출품된 러시아 전시품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새 박람회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러시아 제국과 대영제국의 외교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영국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런던의 새로운 시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황제는 표도르 리보프 러시아기술협회 서기를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1871년 박람회에 파견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와 사우스켄싱턴을 방문한 다른 인사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런던의 새로운 박람회가 상업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모든 전시 부문과 분야에 참여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1872년과 1873년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목제품과 철강 제품, 마차, 크림산 와인, 잼과 설탕 등을 출품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품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1872년 박람회에서 특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러시아 미술이었다. 새로운 박람회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그중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어떤 작품을 출품하느냐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이런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런던에서 러시아 미술이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10년 전인 1862년 만국박람회였다. 당시에 많은 영국인은 멀리 떨어진 러시아를 조롱 섞인 표현으로 ‘모스크바국’이라 부르곤 했다. 어쨌든 러시아는 영국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해 본 경험이 있었다. 다만 그 경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1862년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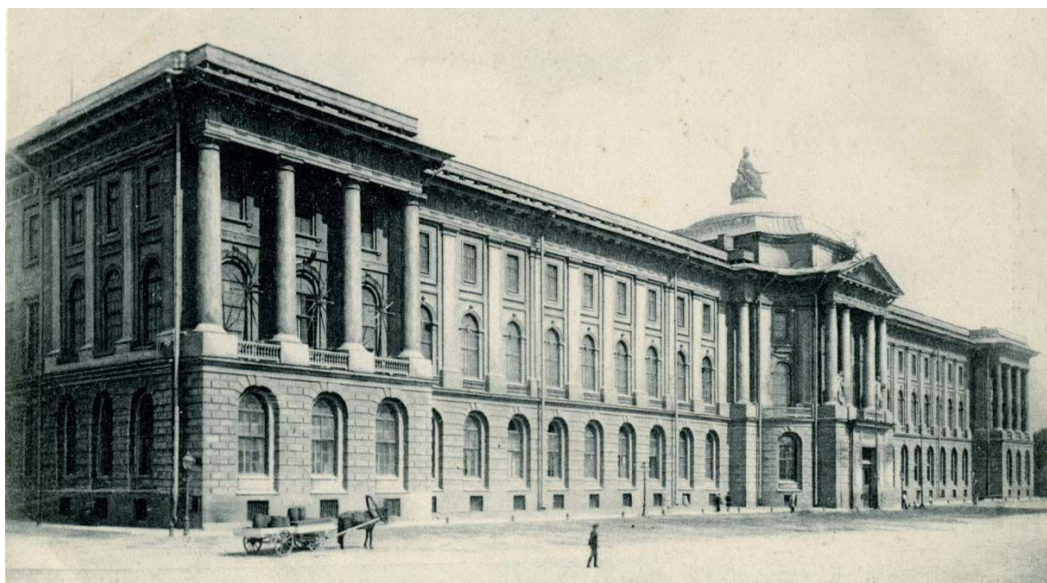
1871년 연례 국제박람회의 공식 개막식 © 《루스키 미르》

“1872년 박람회에서 특히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러시아 미술”

로 다른 세대의 미술계 인사가 참여하게 충돌했다. 제국미술아카데미를 대표해 출품작을 선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사들이 자신의 입장을 내세웠고 미술 전문가와 수집가들은 이에 반발했다. 서로의 자존심과 이해관계가 맞부딪쳤다. 어떤 이는 아예 의욕을 잃었고 어떤 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작품 선정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러시아 회화는 총 78점이 출품됐다. 블라디미르 보로비콥스키와 드미트리 레비츠키, 오레스트 키프렌스키, 카를 브롤로프,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 등 러시아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포함됐다. 다음 세대에서도 파벨 페도토프와 이반 아이바좁스키, 알렉세이 보골류보프, 발레리 야코비, 파벨 치스타코프 등 쟁쟁한 화가들의 작품이 선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회화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작품의 기량 자체는 분명히 뛰어났지만, 유럽 미술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반응을 뼈아프게 받아들였다. 평론가이자 비평가였던 블라디미르 스타소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유럽이 러시아 미술에 대해 품고 있던 기존의 편견을 오히려 더 굳혀 줬다. 러시아 미술은 아직 완전히 유아적인 단계에 있으며 독창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인식을 말이다.”

러시아는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할 작품을 선정했던 경험도 있었다. 당시에도 5년 전 런던 박람회 때와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됐다. 이번에도 논의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제국미술아카데미가 있었다. 그러나 출품작을 선정하고 이를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까다로운 실무는 러시아 미술 부문 대표였던 바체슬라프 시바르츠가 도맡았다. 시바르츠는 파리의 러시아 전시가 뚜렷한 개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고전적 소재로는 외국 화가들과 경쟁할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국 관람객도 쉽게 이해하면서 러시아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려 했다. 러시아의 생활상과 다양한 인간 군상, 민족사를 생생하게 담은 작품을 적극적으로 선정했다. 이런 노력 덕에 러시아 미술 전시장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비평가들의 평가는 예전과 비슷했다. 러시아 화가들의 뛰어난 ‘유럽식 기량’을 칭찬하는 데 그쳤던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국미술아카데미 © 《루스키 미르》

“1872년 박람회에는 생존 작가의 작품이나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어”

1872년 박람회에서는 런던 주최 측이 한 가지 제한 사항까지 제시했다. 1862년 만국박람회가 한 세기에 걸친 미술의 성과를 폭넓게 보여주는 자리였다면, 1872년 박람회는 출품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생겼다. 생존 작가의 작품이나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국의 전시는 미술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그 발전상을 보여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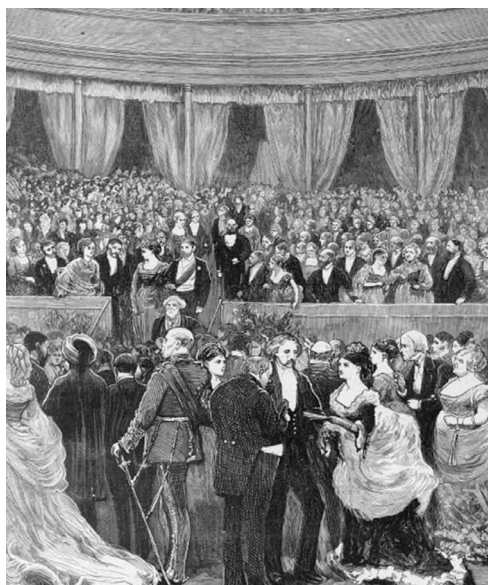
네바강에서 템스강으로

한편 러시아 미술계에서는 격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1863년 제국미술아카데미에서는 이른바 ‘14인의 반란’이 일어났다. 가장 뛰어난 졸업생들이 모두에게 똑같은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한 졸업 경연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아카데미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가 조합’을 결성했다. 1870년에는 ‘이동과 미술전람회협회’가 창립됐고 과거 ‘반란’에 참여했던 화가들 가운데 일부도 여기에 합류했다.

당시 러시아 미술계에는 두 흐름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전통을 고수하며 미술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화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영감을 준 것은 성서의 이야기나 고대 신화가 아니었다. 자신들을 둘러싼 현실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러시아 역사에 나오는 사건과 이미지였다.

아카데미 내부의 갈등 속에는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세력이 있었다. 니콜라이 1세 시대부터 제국미술아카데미의 수장은 황실 구성원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인물이 알렉산드르 2세의 아들 블라디미르 대공이었다. 그는 1869년부터 당시 ‘아카데미 총재 대리’라고 불리던 직책을 맡았고 1876년에는 아카데미를 직접 이끌었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활동적이었으며 러시아 미술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미술계를 대하던 그의 태도를 ‘민족적 보호주의’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예술 후원은 러시아 황실의 오랜 전통이었다. 블라디미르 대공 역시 화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했다.

하지만 미술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1872년 런던 국제박람회 개막식 © 《루스키 미르》

할 수 있었던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기존의 ‘아카데미파’와 이에 반기를 든 새로운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 한 것이다. 그는 현실이나 ‘러시아인의 삶’을 소재로 한 그림과 러시아 역사 속 인물들의 초상화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동파 화가들에게는 제국미술아카데미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성격이 서로 다른 두 흐름을 화해시키려는 그의 시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바로 이때 런던의 새로운 박람회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특히 순수미술 전시에 관한 조건은 러시아의 상황과 여러모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1871년 런던 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던 블라디미르 대공은 러시아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이 추진하던 미술계의 변화에도 힘을 실어 줄 절호의 기회를 찾았다.

박람회를 준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역은 개인 수집가들이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미술품 수집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도 변하고 있었다. 과거 미술품의 주요 주문자였던 수집가 대부분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으며 이미 20여 년 전부터 제국미술아카데미 전시에 자신들의 소장품을 출품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집가의 범위도 넓어졌다. 출신과 직업은 물론 취향과 수집 목적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미술품 수집에 뛰어들었다. 수집은 사회 전반으로 점차 확산했다. 누군가에게 수집은 오랜 전통이었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거나 상업 활동의 하나이기도 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열정이었고 후원이나 자선 활동처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하는 일이기도 했다.

1862년과 1867년 만국박람회에서도 개인 소장품 가운데 일부 작품이 이미 전시된 바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새롭게 형성되는 개인 컬렉션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개인 수집가와 컬렉션이 러시아 회화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위와 관점, 교육 배경과 취향, 능력을 지닌 수많은 사람이 얹힌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해답을 찾아야 했다. 바로 러시아 미술을 영국에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문제였다.

런던이 다시 본 러시아 미술

1872년 사우스켄싱턴 박람회 순수미술 부문의 공식 도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전시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 미술품은 선정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가기관이 특히 큰 역할을 했다. 회화 작품의 최대 사분의 일가량이 황실 구성원의 소장품이었다. 러시아는 런던 박람회 준비를 국가의 위신이 걸린 일로 받아들였다. 러시아 미술을 유럽 미술의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 현상으로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것이다. 영국 언론은 러시아 미술품 전시의 높은 수준을 평가하면서 특히 러시아 황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외무부도 작품을 제공하며 힘을 보탰다.

전시를 위해 준비된 러시아 미술품은 동관의 두 전시실에 배치됐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세

“러시아는 런던 박람회 준비를
국가의 위신이 걸린 일로 받아들여”

대와 유파에 속한 화가들의 작품이 골고루 포함됐다. 역사화, 전쟁화, 풍속화,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 등 장르도 다양했다. 다만 출품작 수 자체는 많지 않았다. 회화와 판화 작품은 모두 113점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화는 29명의 작가가 그린 44점이었다. 참여 작가로는 이반 아이바좁스키와 바실리 페로프, 초상화와 역사화의 거장 바실리 베레샤긴, 그리고 그와 이름이 같은 전쟁화가 바실리 베레샤긴을 비롯해 알렉세이 보골류보프, 표도르 바실리에프, 이반 펠레빈, 아폴리나리 고랍스키, 콘스탄틴 마콥스키, 파벨 브로로프, 카를 군, 이반 켈레르(요한 켈러), 미하일 페트로비치 클로트와 미하일 콘스탄티노비치 클로트, 표트르 그루진스키, 레프 라고리오, 파벨 치스타코프, 알렉세이 코르주힌, 알렉산드르 리초니, 바체슬라프 시바르츠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작품 선정은 얼마나 성공적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의 전문 비평가들은 러시아 미술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첫 번째는 기존의 평가를 되풀이한 것이었다. 러시아 화가들이 “기법 면에서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지만, 특별한 독창성은 없다”라는 평가였다. 러시아 화가 상당수가 유럽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반응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평가도 나왔다. 러시아 미술이 놀라운 도약을 이뤄냈으며 “명백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이었다. 이번 박람회는 러시아 미술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어느 쪽이든 러시아 미술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었다. 런던 관람객들은 “러시아 전시장에 강하게 이끌렸다”라고 전했다. 특히 회화 작품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모닝 포스트》는 이렇게 평했다. “단 한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1872년 런던 박람회 순수미술 부문 공식 도록
© 《루스키 미르》



1872년 런던 사우스켄싱턴 국제박람회 러시아 전시장 사진 © 《루스키 미르》

바이로이트의 러시아 예술인들 차이콥스키에서 체르냐코프까지

박선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올해는 바이로이트 축제가 처음 열린 지 150년이 되는 해다. 1876년 8월 13일 리하르트 바그너는 약 25년간 구상해 온 자신만의 음악극 축제를 자신의 설계로 지어진 축제 극장에서 마침내 열었다. 이른바 '절대 반지'에 관한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직접 대본을 쓰고 곡을 붙여 28년에 걸쳐 완성한 음악극 「니벨룽겐의 반지」(이하 「반지」) 전곡을 세 차례 상연한 제 1회 축제에는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다.

바이로이트 축제 공식 자료는 당시 프란츠 리스트(바그너의 장인)를 비롯해 안톤 브루크너, 카미유 생상스, 표트르 차이콥스키, 에드바르 그리그 등 당대 유명 작곡가들과 레프 톨스토이,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 황제 빌헬름 1세, 브라질 황제 페드루 2세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고 전한다. 차이콥스키의 참석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톨스토이가 바이로이트를 찾았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명백한 오류라고 봐야 한다. 여기서 호기심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러시아 예술인들이 바이로이트 축제를 실제로 찾았을까? 취재를 위해 방문한 이들부터 직접 공연에 참여한 이들,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이들까지. 바이로이트와 러시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 온 150년의 역사를 따라가 보자.

바그너라는 견고한 이름

바이로이트 축제는 말 그대로 바그너라는 견고한 이름 위에 세워진 축제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예술적 이상에서 출발한 이 축제는 그의 아내 코지마 바그너, 아들 지크프리트 바그너, 며느리 비니프리트 바그너를 거쳐 손자 빌란트와 볼프강 바그너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증손녀 카타리나 바그너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한 작곡가의 이름과 예술적 유산을 중심으로 이처럼 한 세기 반을 이어온 축제는 없다. 바이에른의 작은 도시 바이로이트는 바그너가 만든 음악의 성지로,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곳에는 바그너의 구상에 따라 오직 자기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특별히 지은 축제 극장이 있다. 극장 내부 역시 철저하게 바그너의 의도에 맞춰 설계됐다. 관객이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피트를 무대 아래 깊숙이 설치하고 뒷개를 만들어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게 했으며 오케스트라도 여러 층의 경사면에 배치해 소리가 반사되도록 했다. 음향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객석은 나무로 만들고 반원형 형태로 배치했으며 공연이 시작되면 객석을 어둡게 만들어 관객의 시선을 무대에만 집중시킨다. 이를 통해 바그너가 의도한 ‘완벽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150년 전 바그너가 제안한 관람 방식은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공식적 복장 규정은 없지만, 턱시도와 이브닝드레스를 차려입은 관객들은 에어컨도 없는 극장에서 가느다란 방석 하나만 놓인 딱딱한 나무 의자에 등을 꼳꼳이 세운 채 오후 4시에 시작해 밤 10시 무렵까지 공연을 관람한다. 바그너의 음악 성전이라 불릴 만한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 마치 바그너 신도들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바그너교’의 의례를 치르는 듯한 모습이 펼쳐진다.

그러나 외형으로는 150년 전 전통을 지키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바그너의 혁신 정신에 걸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다. 바그너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이로이트가 관객을 놀라게 하는 힘이다.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 외부 © 위키미디어

“바그너의 음악 성전이라 불릴 만한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
마치 바그너 신도들이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바그너교’의 의례를 치르는 듯한 모습이 펼쳐져”

취재하다: 차이콥스키와 큐이

1876년 제1회 바이로이트 축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러시아에서도 니콜라이 루빈시테인, 게르만 라로시 등 여러 작곡가가 바이로이트로 향했는데, 표트르 차이콥스키와 체자리 큐이는 현장 비평가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시 차이콥스키는 작곡가로서 크게 성공한 작품을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로, 모스크바의 《러시아 통보》에 평론을 쓰고 있었다. 그는 8월 12일에 바이로이트에 도착해 18일까지 머물며 「반지」 전곡을 감상했다. 그의 글은 총 5부로 연재됐는데, 「반지」의 탄생과 바이로이트 극장 건립 배경 설명, 「반지」 전곡의 줄거리, 현지 경험, 전곡에 대한 음악적 판단을 차례로 담았다. 이 기사들을 통해 성실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의 차이콥스키를 엿볼 수 있다.

차이콥스키는 「반지」를 한 번 듣고는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차례 듣고, 악보와 비교한 뒤에야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바이로이트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바그너가 제시한 오페라의 미학적 원칙이 앞으로 예술의 유일한 길인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바그너 미학에는 유보적이었다. 한편, 그는 현장 비평가다운 생생한 관찰도 남겼다. “빵 한 조각, 맥주 한 잔을 얻는 것조차 싸움을 벌여야 할 정도”라며 바그너의 음악보다 비프스테이크, 커틀릿, 감자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오갔다고 쓴다.

하지만 개인으로서 차이콥스키는 「반지」에 대해 훨씬 솔직하고 신랄했다. 라로시의 회고에 따르면, 차이콥스키는 사석에서 작품에 대한 거부감을 꽤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동생 모데스트에게 보낸 1876년 8월 14일 자 편지에서도 「라인의 황금」을 두고 무대와 연출에는 매료됐지만, 음악은 “믿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열악한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하며 “가능한 한 빨리 빈을 거쳐 러시아로 도망가고 싶다”라고 털어놨다.

큐이의 글은 차이콥스키보다 훨씬 더



표트르 차이콥스키(1875) © 위키피디아

신랄하고 풍자적이었다. 리스트와의 친분 덕분에 그는 바그너의 저작 ‘반프리트’ 리셉션에도 초대받는 등 축제의 내부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특파원들과 사진, 석판화·동판화 초상화, 메달, 흉상 등 바그너 ‘굿즈’로 넘쳐나는 바이로이트를 묘사하며 “어디를 가나 바그너와 니벨룽겐뿐”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시민들에게는 「지크프리트」의 무대 장치인 ‘거대한 벌레(용)’의 머리가 런던에서 도착했는지가 세계정세보다 더 큰 관심사였다고 비꼬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통보》에 처음 실린 그의 바이로이트 기행과 「반지」 비평은 후에 7장으로 구성된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체자리 큐이(1870) © 위키피디아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이자 음악 연구자였던 알렉산드르 파민친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친바그너적 인물이었는데, 그는 바이로이트에서 초연된 「반지」 전곡에 대한 비평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이퉁》에 독일어로 발표했다. 이미 1868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로엔그린」을 관람한 뒤 바그너를 옹호하는 글을 발표할 정도로 일찍부터 그의 음악을 지지해 왔다.

순례 · 탐색하다: 라흐마니노프와 다길레프

러시아 문화·예술계에 미친 바그너의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이어졌다. 바이로이트 축제에 ‘순례’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고,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는 안톤 체호프에게 보낸 1902년 7월 24일 자 편지에서 “바이로이트의 러시아 순례자들은 예술과 극장의 위대함에 깊이 감화됐다”라고 썼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로이트의 러시아 순례자들’에는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를 비롯해 지휘자 세르게이 쿠세비츠키와 볼쇼이 극장 발레리나였던 그의 아내 나데즈다 갈라트, 음악 이론가 이반 리파예프,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오페라 가수 등 다양한 예술가가 포함돼 있었다. 라흐마니노프는 1902년 신흥여행 중 바이로이트를 찾았다. 외사촌 형이자 음악원 스승이기도 했던 알렉산드르 질로티가 결혼 선물로 준 표

“ 러시아에서도 루빈시테인, 라로시 등
여러 작곡가가 바이로이트로 향했고,
차이콥스키와 큐이는 현장 비평가 자격으로 참석 ”

를 가지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파르지팔」, 「반지」를 감상했다. 말하자면 그해 무대에 오른 작품을 모두 관람한 것이다.

라흐마니노프 부부는 화가 발렌틴 세로프도 만났다. 그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바그네리안 작곡가 알렉산드르 세로프의 아들이었다. 알렉산드르 세로프는 바그너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총체 예술’ 개념을 지향했으며 리스트와 바그너와도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바그너의 아내 코지마는 그를 ‘러시아의 리하르트 바그너’로 부르기도 했다. 1902년 화가 세로프는 바그너 가족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오랜 지인이었던 지휘자 알렉산드르 헤신과 함께 바이로이트로 ‘순례’를 떠난 것이다.

러시아 예술계에서 세르게이 다길레프만큼 바이로이트를 열성적으로 찾았던 인물도 드물다. 1890년 빈에서 처음 「로엔그린」을 감상한 뒤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 된 다길레프는 바그너의 아리아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바그너의 곡을 연주했다. 1892년 처음 바이로이트를 찾았을 때, 다길레프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를 포함해 총 일곱 차례 공연을 관람했다. 그해 상연작이 네 작품이었으니 결국 그는 이른바 ‘N차’ 관람을 했다는 말이다. 그는 새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면 바이로이트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길레프에게 바이로이트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는 장소였으며, 후대 연구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베르테르를 위한 만병통치약’과도 같았다.

그러나 1911년 바이로이트를 다시 찾은 다길레프는 이제 순수한 숭배자가 더는 아니었다. 화가 일리야 오스트로우호프의 서신에 따르면, 다길레프는 1913년에 「파르지팔」의 바이로이트 독점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1911년과 이듬해인 1912년의 바이로이트 방문은 공연 기획자이자 탐색자로서의 행보였던 셈이다.

1912년에는 작곡가 이고리 스트라빈스키를 데리고 바이로이트를 찾아 「파르지팔」을 감상했다. 하지만 다길레프의 의도와 달리 스트라빈스키는 바이로이트 극장의 종교적이고 의례적인 분위기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축제 극장을 ‘화장장’이나 ‘장례식 장소’에 비유했고, 공연 도중 객석에서 움직이다가 의자가 삐걱거리려 주변의 눈총을 받았던 일화를 회상하며 엄격한 관람 문화를 종교의식에 빗대어 조롱했다. 다길레프의 의도와 달리 스트라빈스키는 반(反)바그너적 태도를 선명히 보였다.

그런데도 다길레프의 오랜 바이로이트 순례와 탐색은 바그너의 ‘총체 예술’을 발레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해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고, ‘발레뤼스’의 여러 명작으로 이어졌다. 또한 바그너의 길디긴 작품을 생략 없이 공연한다는 이유로 코지마 부인을 비판했던 다길레프의 태도에서는 축약 버전 공연을 예상할 수 있게 했다. 바이로이트로의 ‘순례’는 결국 다길레프에게 바그너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전혀 다른 무대 언어로 변환시키는 탐색의 과정이었다.

“ 러시아 문화·예술계에 미친 바그너의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이어졌고, 바이로이트 축제 ‘순례’를 떠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

참여하다: 게르기예프와 체르냐코프

바이로이트 축제에 가장 먼저 참여한 러시아인은 성악가도, 지휘자도 아닌 무대 미술가 파벨 주콥스키였다. 낭만주의 시인 바실리 주콥스키의 아들인 그는 1892년 두 번째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초연된 「파르지팔」의 무대 장치와 의상 디자인을 담당했다. 파벨은 1880년부터 바그너 가족과 가까이 지냈으며 바그너의 엄격한 통제 아래 2년 동안 「파르지팔」의 무대 장식과 의상 스케치를 준비했다. 바그너는 1882년 화가의 생일에 맞춰 「파르지팔」의 총보를 완성했고, 이듬해에는 「주콥스키 행진곡」을 작곡해 악보를 선물하기도 했다. 1883년 파벨은 러시아에서 있었던 아버지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포기한 채 바그너 곁에 남았다. 바그너가 사망하기 전날 주콥스키가 남긴 마지막 모습의 연필 소묘는 현재 바이로이트 바그너 센터에 보관되어 있다.

바이로이트 축제에 참여한 러시아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악가다. 베이스 알렉산드르 킵니스는 1927년부터 1933년까지 바이로이트 무대에 정기적으로 섰다. 히틀러 집권 이후 유대인으로서 독일 극장 무대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1940년부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메조소프라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엘레나 짓코바, 마리나 프루텐스카야, 엘레나 판크라토바, 예카테리나 구바노바 등이 대표적이다.

짓코바는 2001년 「발퀴레」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했고, 프루텐스카야는 2006년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반지」 새 연출작에서 플로스힐데 역으로 바이로이트 무대에 데뷔했다. 또한 2021년 체르냐코프 연출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는 유모 마리 역을 맡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판크라토바는 2016년 「파르지팔」의 쿤드리 역으로 바이로이트에 성공적으로 데뷔했고, 2018년에는 바이로이트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바이로이트 축제 공식 사이트에서 ‘동 세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구바노바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작품에 지속해서 참여했다. 2025년에는 「파르지팔」의 쿤



「파르지팔」의 무대 장식을 담당한 파벨 주콥스키(시인 바실리 주콥스키의 아들)가 바그너 사망 하루 전에 그린 연필 소묘(1883) © 위키미디어

“체르냐코프는 바그너가 제시한 욕망과 구원의 신화를 현대적 배경으로 옮겨 사실적이고 심리적인 드라마로 재해석했고, 첫해에는 찬반이 엇갈렸으나 이후 점차 호평받아”

드리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브랑게네를 맡았다.

지휘자로 눈을 돌리면, 키릴 페트렌코나 세몬 비치코프 같은 ‘러시아 출신’ 지휘자를 제외할 때 ‘러시아 국적’을 가진 지휘자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지휘자는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유일하다. 그는 1997년 마린스키 극장에서 「파르지팔」을 시작으로 바그너 작품을 무대에 꾸준히 올렸고, 2019년 「탄호이저」를 추가하면서 바이로이트의 정전으로 인정되는 바그너 오페라 10편을 모두 마린스키 레퍼토리에 올렸다. 2019년에 마침내 바이로이트에 「탄호이저」 지휘로 초청받았지만, 친푸틴 행보를 이유로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 속에 데뷔했다. 첫 공연에서는 환호와 야유가 엇갈렸고, 리허설 부족으로 오케스트라와의 호흡이 불안정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공연들에 대한 평가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게르기에프는 다시 바이로이트로 초청받지 못했다.

세계적 명성의 레지오페라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냐코프는 2021년 축제 개막작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으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했다. 바그너가 제시한 욕망과 구원의 신화를 현대적 배경으로 옮겨 사실적이고 심리적인 드라마로 재해석한 그의 연출은 첫해에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후 점차 호평받았다. 이 작품을 지휘한 옥사나 리니우는 바이로이트 145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기록됐다. (이후 나탈리 슈투츠만과 시몬 영이 그 뒤를 이었으며, 2024년에는 이 세 명의 여성 지휘자가 모두 바이로이트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체르냐코프와 함께 작업한



체르냐코프 연출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속 마리 역의 프루덴스카야와 젠타 역의 그리고란 © 바이로이트 축제

의상 디자이너 엘레나 자이체바, 조명 디자이너 글레프 필시틴스키, 극작가 타티야나 베레사기나 역시 바이로이트 DB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러시아 예술인들의 바이로이트 참여는 초기의 무대 미술에서 성악과 지휘를 거쳐 현대의 연출과 무대 제작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참여 안/못 하다: 니키틴과 네트렙코

한편, 바이로이트에 가지 않았거나 못했던 예술인들도 있었다. 마린스키 극장의 테너 이반 예르쇼프는 1901년 코지마 바그너의 초청을 받고도 바이로이트에 가지 않았다. 1890년대부터 바그너의 작품을 소화했고, 1900년에 마린스키 극장에서 올린 「발퀴레」의 지크문트를 부른 것이 코지마의 관심을 끌었다. 코지마는 그에게 바이로이트에 와서 독일어로 바그너 작품을 연주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예르쇼프는 이미 러시아어 공연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구축한 상태였다. 독일어로 배역을 다시 익히고 바이로이트의 전통적 해석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과 국외 활동을 선호하지 않았던 성향 때문에 결국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참여 의지에 반해 무대에 서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바이로이트에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타이틀 롤로 데뷔 예정이었던 마린스키 극장의 베이스바리톤 예브게니 니키틴은 개막을 며칠 앞두고 젊은 시절 영상 속 문신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공연에서 배제됐다. 그의 자리는 2004년 바이로이트에 데뷔한 한국인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현 서울대 성악과 교수)이 대신했다. 그러나 이후 반전이 있었다. 니키틴의 문신이 스칸디나비아 신화와 헤비메탈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나치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고, 자신의 두 할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군에 의해 희생당했다고도 밝혔다. 바이로이트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나치즘과 연결됐던 바이로이트의 흑역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렙코 역시 바이로이트 무대에 서지 못했다. 2016년 드레스덴 젬퍼오퍼의 「로엔그린」에서 엘자 역을 맡아 호평받은 뒤 2019년 바이로이트에서도 같은 역으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연을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극심한 탈진’을 이유로 취소했다. 취소 며칠 뒤 소셜미디어에 가족과 함께 결혼식 등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언론과 관객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해 잘츠부르크 축제에서도 감기를 이유로 공연을 당일 취소한 이력으로 비판은 더 강해졌다. 성악가에게 공연 취소는 목 상태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결국 네트렙코의 경우 문제가 된 것은 취소 자체보다는 공연을 대하는 태도였다.

2026년 축제 폐막 이후 발표된 2027년도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예술인의 이름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에는 러시아 예술인들의 참여가 다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바이로이트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반지」의 새 프로덕션을 러시아 연출가 바실리 바르하토프가 맡고, 벨라루스 출신 러시아 무대 미술가 지노비 마르골린이 무대 장식을, 올가 샤이시멜라 시빌리가 의상을, 알렉산드르 시바예프가 조명을 담당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휘봉은 2023년 「파르지팔」로 바이로이트에 데뷔해 호평받은 스페인 출신 파블로 에라스-카사도가 잡는다. 

소련의 마지막 여름

8월 쿠데타 여파의 재조명

김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1991년 8월 소련에서 국가비상사태위원회(이하 '비상위원회'로 약칭)가 권력 장악을 시도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크림에서 휴가 중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실상 격리된 가운데 모스크바 시내에 전차가 등장했고, 시민들은 최고회의 건물 주위에 모여 이에 항의하고 저항했다. '비상위원회'의 쿠데타는 삼일천하로 끝났지만, 그 충격은 소련의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불과 몇 달 뒤 국가 자체의 해체로 이어지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2026년 8월 러시아 언론에서 당시 사건을 되짚어보는 관련 보도가 잇달아 쏟아졌고, 일부 주요 매체는 특집 기획을 구성해 소련 붕괴로 이어진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중앙 권력은 왜 급속히 약화했는지, 각 공화국의 이탈은 어떻게 가속됐는지, 그리고 냉전의 종결이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등이 진지하게 논의됐다. 특히, 모스크바 시내의 전차와 「백조의 호수」의 TV 방영, 시민들의 저항, 다시 등장한 삼색기는 당시 격변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 1991년 8월은 오늘날에도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냉전 종식과 함께 나타난 국제질서 변화를 함께 되짚게 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면서 보수파의 권력 장악 시도는 21일 사흘 만에 결국 실패”

러시아 삼색기: 삼일천하가 낳은 뜻밖의 결과

1991년 8월 19일 소련 시민들은 ‘비상위원회’ 출범 소식을 접했다. 이 위원회에 속한 겐나디 야나예프 소련 부통령과 블라디미르 크류치코프 국가보안위원회(KGB) 의장, 드미트리 야조프 국방부 장관, 보리스 푸고 내무부 장관, 발렌틴 파블로프 총리 등 소련 최고지도부 보수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개방 정책을 반대하며 권력에서 그를 축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시내에 전차와 장갑차를 진입시키는 등 무력 사용도 불사했다. 소련 국영 TV 방송에서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가 방영됐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시민들의 저항이 이어지면서 보수파의 권력 장악 시도는 21일 사흘 만에 결국 실패했다.

당시 방송된 「백조의 호수」는 단순한 발레 공연이 아니었다. 소련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국가적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TV 방송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클래식 음악이나 발레를 내보내는 일이 관례여서, 당시 예정에 없던 발레 방송 자체가 시민들에게 국가 중대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1991년 8월 19일에도 ‘비상위원회’가 방송을 통제하면서 정규 프로그램과 생방송 대신 「백조의 호수」 녹화 방송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시민들은 당국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쿠데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백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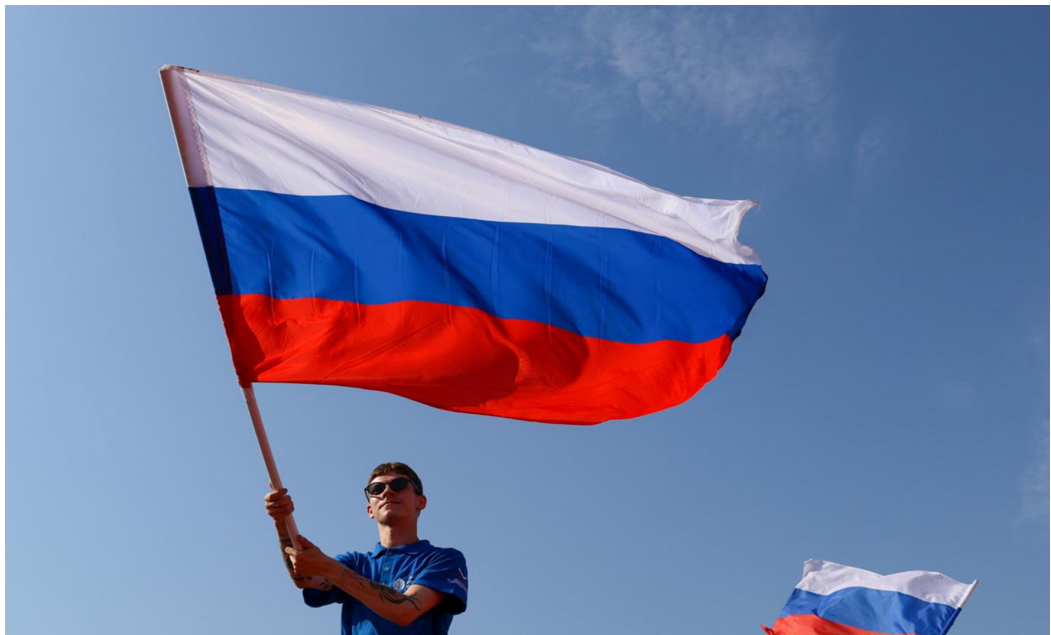
1991년 8월 19일 모스크바 시내 최고회의 건물 앞 110호 전차 위에서 연설하는 옐친과 그 뒤로 펼쳐진 삼색기 © 《코메르산트》

호수」는 이후 보수파의 권력 장악 시도뿐 아니라 정보 통제와 정치적 불확실성, 소련 말기의 국가적 위기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았다. 특히 8월 정치적 격변을 대표하는 주요 상징이 됐으며, 소련의 ‘백조의 노래’가 됐다.¹

TV 방송이 내보낸 「백조의 호수」가 중앙 권력의 침묵과 정보 통제를 상징했다면, 정치적 혼란은 곧 수도 모스크바를 넘어 소련 여러 지역으로 확산했다. 예를 들면, 머나먼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군, 언론, 시민사회가 어느 권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 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한 사무실에서 고르바초프와 엘친의 초상화를 번갈아 바꿔 걸었다는 일화가 전해졌고, 태평양함대에서는 상부의 명령을 벗어난 잠수함 출항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권력의 공백과 정당성의 위기가 극동에까지 전달됐다는 점에서 8월 쿠데타는 중앙 지도부 내부의 권력투쟁을 넘어 소련의 국가 체제 전체를 뒤흔든 정치 위기였다.

쿠데타가 막을 내린 직후, 새로운 러시아를 상징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오늘날 러시아 국기인 백·청·적 삼색기의 기원은 17세기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시대와 군함 ‘오를’ 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표트르 1세 시대를 거치면서 러시아를 대표하는 깃발로 자리 잡았다. 제정 러시아에서 사용됐던 삼색기는 혁명과 함께 공식적 지위를 잃었지만, 1991년 8월 쿠데타에 반대하는 세력과 시민에 의해 다시 등장했다. 최고회의 건물 주변에서도 삼색기가 사용되면서 소련의 붉은 깃발과 대비되는 정치적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공산당 보수파의 권력 장악 시도가 실패한 다음 날인 22일 러시아공화국은 삼색기를 다시 공식 깃발로 채택했다. 이후 1993년 12월 대통령령을 통해 현재의 삼색기 형태가 확립됐고, 1994년에는 8월 22일이 ‘러시아연방 국기의 날’로 제정됐다. 이처럼 삼색기의 복원은 단순한 국기 변경이 아니라, 쿠데타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사용된 깃발이 새로운 러시아의 국가상징으로 공식화된 과정이었다. 당시에는 소련의 붉은 깃발과 대비되며 새로운 정치질서와 국가정체



러시아 국기 © 《타스통신》

성을 나타냈다면, 3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17세기와 표트르 1세, 제정 러시아를 거쳐 현대 러시아로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까지 함께 담고 있다.² 따라서 모스크바 시내의 전차와 TV 방송의 「백조의 호수」가 소련 말기의 혼란을 보여줬다면, 삼색기는 그 뒤에 등장할 새로운 러시아의 출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8월 격변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

2026년 8월 러시아 언론에서는 35년 전 여름의 격변을 둘러싼 의미가 재조명됐다. 소련 해체 과정에서 이 사건이 차지한 의미에서부터 냉전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남긴 영향에 이르기까지 주목하는 지점도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포브스》의 관련 기사는 러시아 역사학자 드미트리 트라빈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소련 해체의 결정적 순간을 1991년 12월 벨로베자 협정보다는 그전에 일어난 8월 쿠데타에서 찾는다. 특히, 벨로베자 협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해체 과정을 마무리한 사건에 가까웠으며, 소련이 되돌아가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것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이 기사는 급진적인 정치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던 국가 관리 체계와 취약한 권력 균형이 쿠데타로 무너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은 크게 약화했고, 이후에는 소련을 보존하려는 강력한 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³ 반면 쿠데타 저지 과정에서 전면에 나선 엘친은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건물인 ‘벨리 돔’을 중심으로 저항을 이끌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고르바초프와 연방정부의 권위가 약화하는 사이에 정치적 주도권은 러시아 공화국을 비롯한 각 구성 공화국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결국 12월 벨로베자 협정은 이런 변화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단계에 가까웠다.

《베도모스티》는 이런 변화를 8월 20일 체결 예정이던 신연방조약 문제와 연결한다. 이 조약은 소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각 구성 공화국에 더 많은 주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방 체제를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비상위원회’의 보수 강경파는 이것이 기존 소련의 해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조약 체결을 저지하려 했으나, 쿠데타가 실패함에 따라 오히려 중앙 권력의 권위를 약화하고 공화국들의 이탈을 촉진했다. 소련을 지키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해체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베도모스티》는 1991년 8월을 소련이 넘어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평가한다.⁴

한편, 친정부 매체인 《브즈글라드》 기사에서 러시아 정치학자이자 ‘발다이 클럽’ 프로그램 책임자인 티모페이 보르다초프는 1991년 8월을 소련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분기점으로 보지만, 분석의 초점은 다르다. 그는 소련 내부의 권력구조 붕괴보다는 냉전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고,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에 주목한다. 소련·러시아가 냉전 경쟁에서 물러났지만,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하거나 점령된 국가는 아니었고, 러시아 역시 자신을 패전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르다초프는 이런 냉전 종결의 특수성이 러시아와 서

“ 1991년 8월은 소련을 지키려던 시도가
역설적으로 해체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소련이 넘어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평가돼 ”

“8월 쿠데타는 단순히 사흘 간의 권력 투쟁을 넘어,
소련 해체와 그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외 질서의 변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 사건”

방의 서로 다른 국제질서 인식을 낳게 된 배경이 됐다고 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와 서방의 대러 정책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한다.⁵

오늘날 이 사건은 엘친의 전차 연설과 시민 저항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변화의 순간이자, 소련이 돌이킬 수 없는 해체 단계로 접어든 전환점이며, 동시에 냉전 종식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이 맞물린 분기점이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결국 8월 쿠데타는 단순히 사흘 간의 권력 투쟁을 넘어, 소련 해체와 그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외 질서의 변화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 사건이었다.

35년 후: 승패를 넘어선 ‘국가의 교훈’

쿠데타 발생 후 35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에서 1991년 8월은 승자와 패자를 다시 가리는 문제보다는 국가권력과 정치제도가 왜 위기를 통제하지 못했는가를 되묻는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비상위원회’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패를 단순히 정치적 변화의 승리로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치력 약화와 지도층의 분열이 어떻게 국가 전체의 위기로 확산했는지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크렘린궁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라면서도 “이것은 러시아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의 해석을 공식적인 결론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상반된 평가 자체를 러시아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다.⁶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35년 전의 격변에서 끌어내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통치체계가 흔들릴 경우 그 충격이 중앙 정치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의 혼란은 모스크바에 국한되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변방 지역에서도 행정기관과 군, 언론, 시민들이 어느 권력을 따라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중앙의 정치적 분열과 혼란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지휘 체계 혼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둘째, 국가를 보존한다는 명분 자체가 국가의 존속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위원회’는 소련의 존속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쿠데타 실패는 중앙 권력의 권위를 더 약화시켰고 공화국들의 이탈을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셋째, 역사는 승자와 패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에게 쿠데타를 계기로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의 순간이었지만, 소련 해체와 1990년대 정치·경제적 변화가 모두 그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변화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상주의자와 낭만주의자’였지만, 그 결과를 활용한 것은 이후의 ‘냉정한 실용주의자’였다는 평가는 이런 간극을 보여준다. 이런 시각은 “역사는 다시 쓰는 것이



1991년 국가비상사태위원회에 반대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위 © (PrimaMedia)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로 압축된다.⁷

결국 2026년 러시아에서 1991년 8월 여름의 쿠데타 사건을 돌아보는 핵심은 당시의 정치적 승패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소련 지도부의 통치력 약화와 정치 엘리트의 분열이 국가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소련 체제를 지키려던 시도가 오히려 해체를 앞당겼다는 역설에 더 주목한다. 이는 국가의 존속이 명분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과 정치적 정당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쿠데타 세력의 권력 장악 시도는 삼일천하로 끝났지만, 그 사흘이 남긴 질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위기의 순간 정치적 선택과 제도의 대응이 국가의 향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되묻게 하는 역사적 경험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전쟁이라는 또 다른 중대한 선택의 한가운데에 놓인 오늘의 러시아에도 1991년의 경험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국가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는 결국 역사가 판단할 몫으로 남는다. 

- 1 “7 символов путча ГКЧП. Вспоминаем «лебединую песню» СССР.”
<https://www.gazeta.ru/twz/krugozor/7-simvolov-putcha-gkchp-vspominaem-lebedinuyu-pesnyu-sssr.htm>
- 2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России: как родился триколор.”
<https://tass.ru/obschestvo/2803327>
- 3 “Путч и последствия: кто реально развалил СССР.”
<https://www.forbes.ru/mneniya/566841-putch-i-posledstvia-kto-real-no-razvalil-sssr>
- 4 “Переломный 1991-й: как СССР прошел точку невозврата.”
<https://www.vedomosti.ru/story/perelomnyj1991>
- 5 “Август 1991-го укрепил вражду Запада к России.”
<https://vz.ru/opinions/2026/8/20/1444405.html>
- 6 “Песков назвал путч ГКЧП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истории России.”
<https://www.kommersant.ru/doc/8893731>
- 7 “Путч: как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ежедневно меняли портреты президентов и угнали подводную лодку.” Op. cit.